

8월 Market Index			
↓ 코스피	↓ 코스닥	↓ 금리 (연이자율)	↓ 환율 (원/달러)
7246.79 (-409.52)	785.00 (-46.23)	3.775 (-0.005)	1503.40 (-24.80)



**이재명 대통령, 튀르키예 환영 만찬 참석**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7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튀르키예 레제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부인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튀르키예 대통령실

## ‘임단협 난항’ 완성차, 파업 초읽기

현대차 노조, 기본급 등 인상 요구 ‘특근거부’ 시작, 압박수위 높아  
기아 노조, 오늘 총력투쟁 선포식  
한국GM도 파업 가능성 높아져

국내 완성차 업계의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 교섭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특근 거부에 돌입한 데 이어 기아 노조는 총력투쟁을 예고했고, 한국GM 노조도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 하면서 하반기 노사 갈등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각사 노조는 임금 인상과 성과급 확대를 공통 요구안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회사 측은 경영 불확실성과 수익성 둔화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울산 공장 본관에서 집중교섭을 이어가며 임단

협타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합의안을 도출 하지 못하고 있다. 시측은 기본급 8만4000 원 인상, 성과급 350%에 더해 950만원 지급, 자사주 12주 지급 등을 담은 제안을 내놨지만 노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인상, 정년 연장, 신규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 안정 방안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노조는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로 특근 거부를 시작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15차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기아 노조는 9일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고 교섭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기아 노조는 영업이의

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대차 노조가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과 비교해 강한 수준의 성과 배분 요구다. 이외에도 정년 연장, 주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공장의 대형 버스 생산 중단에 따른 고용 안정과 미래 생산 물량 확보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GM도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으며, 앞선 파업 찬반투표에서도 86.5%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조합원 1인당 약 3000만원의 성과급 지급, 주4.5일제 도입, 미래차 생산 물량의 국내 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양성원 기자 ysw@metroseoul.co.kr



## “이달 중 ‘원화 국제화’ 로드맵 확정”

구윤철 부총리, 시장상황점검회의  
수출 역대 최대... 경기흐름 ‘양호’



가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기 흐름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글로벌 정책금리 인상 기대 및 외국인 자금유출 지속 등으로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정학적 긴장 재고조 가능성을 주요 리스크로 꼽았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코스피의 급등 이후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차익 실현, 포트폴리오 재조정, 글로벌 인공지능(AI) 경기 전망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6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 SK하이닉스 ADR 공모 ‘몇 배’ 초과 청약

기관투자자 1000곳 투자설명회 참여  
투자사 3곳 최대 70억달러 매수 의향  
UBS “ADR 매수, 韓 주식 매도 권고”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공모가 ‘몇 배’ (multiple times) 초과 청약된 것으로 전해졌다. ADR상장을 앞두고 몇몇 외국계 투자은행(IB)은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매수하고 한국 상장 주식은 매도하라고 투자자들에게 권고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안정적, 장기적 성장의 대형 기관투자

자와 기술주 전문 투자자들의 수요가 초기부터 강했으며 6일 열린 투자설명회에는 기관투자자 약 1000곳이 참여했다.

공모가는 뉴욕시간 기준 9일 오후 결정된다.

시추에이셔널 어웨어니스 파트너스, 베일리 기포드, 코튜메니지먼트 등 대형 투자사 3곳이 이번 공모에서 최대 70억달러를 매수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상태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투자회사 화이트옥스 캐피탈의 노리 치우 투자 담당 이사는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주식, 특히 메모리 반도체 종목은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남아 있다”며 “이 같은 희소 가치가 수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거래는 최근 몇 년 새 가장 격렬한 수준의 글로벌 반도체주 변동성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게 변수로 꼽힌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투자은행 UBS그룹은 고객 노트에서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매수하고 한국 상장 주식은 매도하라고 투자자들에게 권고했다. (2면에 계속)

/허정원 기자 zelkova@



메트로신문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오늘 오후 2시~5시,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관람가사 L8면)

# AI로 더 쉽게! 더 빠르게!

## 경기도 이주민 포털!

**다국어 지원**  
언어 걱정 없이  
편리하게!

**다양한 정보 제공**  
이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커뮤니티**  
취업, 맛집, 유머 등  
다양한 주제로 소통!

**24시간 상담**  
전문 상담사와  
AI챗봇으로 실시간 연결!

# IMF, 한국 성장률 2.6% 전망 “美 등 주요 7개국 모두 앞설 것”

## 7월 세계경제전망

지난 4월 대비 0.7%p 상향 조정  
AI 하드웨어 수출 주도국 평가  
세계 경제, 하방요인 상존 우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성장률 예측치를 종전 대비 무려 0.7%포인트(p)나 올렸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가 미국 등 주요 7개국(G7)에 모두 앞서고 세계 경제 성장률에도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8일(현지시간) 발표한 ‘7월 세계경제 수정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2.6%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인 1.9%에서 0.7%p 상향한 수치다.

미국 경제에 대해선 기존 2.3% 성장 전망을 유지했다. 일본 예측치는 종전의 0.7% GDP 증가에서 0.6% 증가로 소폭 내려 잡았다. 또 캐나다(1.5→1.1%), 프랑스(0.9→0.6%), 독일(0.8→0.7%)에 대한 전망치도 낮췄다.

전 세계에 대한 전망치는 3.0%로 제시했다. 4월 전망인 3.1%보다 낮아졌다. 중국 GDP는 4.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한국을 인공지능(AI) 하드웨어 순수출 상위 4개국(한국·대만·태국·말레이시아)이라고 치켜세웠다. 한국 경제에 대해, 중동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반도체 및 AI 하드웨어 수출 호조에 힘입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선 하방요인의 상존을 우려했다. 보고서는 “세계 경제의 하방요인이 4월보다는 누그러졌지만 하방요인은 아직 (상방요인보다) 우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을 비롯해 무역 분절화, 일부 국가의 정책 여력 약화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IMF의 견해다.

또 AI의 경우, 효율성 향상을 통해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나 기대 반전 시 소비·금융을 위축시키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물가안정 최우선의 통화정책을 전개할 것을 각국에 제언했다. 재정 지원의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시적·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에너지 안보 및 AI 대응역량 강화 등 구조개혁과 무역규범 복원 등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IMF 보고서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도 전망치를 올려 잡았다. 4월 2.1% 성장 예측에서 7월 2.5%로 상향 조정했다. 2027년 세계 GDP와 미국 GDP는 각각 3.4%, 2.2%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제조업 생산이 조정됐으나 반도체 수출과 서비스업 호조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수출은 견조한 AI 관련 수요에 힘입어,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며 “반도체 관련 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대한전선의 두번째 CLV ‘스칸디 커넥터’호.

/대한전선

## 전선업계, 해저케이블 시공역량 높인다

전용 포설선 확보 등 경쟁력 강화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에너지고속도로 등 대형 해저 전력망 사업을 앞두고 국내 전선업계가 생산 설비 확충에 이어 해상 시공 역량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해저케이블은 생산 이후 현장 운송과 해상 포설까지 일괄 수행해야 하는 사업 특성이 강해 전용 포설선과 운용 경험이 대형 프로젝트의 일정 관리와 수행 능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8월 업계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최근 1만톤급 해저케이블 전용 포설선(CLV) ‘스칸디 커넥터(Skandi Connector)’호를 확보했다. 기존 전용 포설선 ‘팔로스(PALOS)’호에 이은 두 번째 포설선으로, 생산과 해상 시공을 연계한 사업 수행 기반을 넓혔다.

스칸디 커넥터호는 선박위치정밀제어 시스템(DP2), 대용량 듀얼 캐로셀, 텐서너 등을 갖춘 고사양 선박이다. 해상풍력 내·외부망과 장거리 계통연계, HVDC 해저케이블 시공까지 대응할 수 있다. 특히 갯벌이 많고 수심이 얇은 서해안처럼 조류 변화가 큰 해역에서도 비칭(Beaching) 기술을 활용해 선박을 해저면에 고정 한 뒤 포설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시공 안정성을 높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LS마린솔루션도 차세대 해저케이블 포설선 건조에 들어갔다. 새 포설선은 케이블 적재량 1만3000톤 규모로 2028년 상반기 인도가 목표다. 장거리·대규모 해저케이블 시공에 맞춰 설계됐으며 서해안 HVDC 에너지고속도로 등 대형 전력망 사업 참여를 겨냥하고 있다.

새 포설선이 인도되면 LS마린솔루션은 기존 GL2030과 함께 대형 해저 전력망 사업을 수행하는 포설선 2척 체제를 갖추게 된다. 미국 해저케이블 생산법인 LS그린링크의 2028년 상업 생산 개시

와 맞물리면 현지 생산과 해저 시공을 결합한 턴키 사업 대응력도 높아질 전망이다.

전용 포설선은 해저케이블 사업에서 단순 운반 장비가 아니라 시공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힌다. 일반 바지선이 케이블 운반이나 보조 작업에 쓰이는 것과 달리 포설선은 케이블을 감아 보관하는 텐데이블과 캐로셀, 장력을 조절하는 텐서너, 선박 위치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시스템 등을 갖춰 해저에 케이블을 직접 설치한다.

대형 포설선 확보가 중요해지는 배경에는 해저케이블 사업의 특성이 있다. 해저케이블은 길고 무거워 한 번에 싣고 이동하는 물량이 많을수록 출항 횟수와 케이블 접촉 작업을 줄인다. 조류와 수심, 해저 지형, 장력 제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밀 시공 작업인 만큼 여러 선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같은 효율을 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해안 HVDC 에너지고속도로 사업도 포설선 확보 경쟁을 키우는 요인이다. 서해안 해역은 수심이 낮고 조류 변화가 커 시공 난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1만톤 이상급 포설선과 정밀 시공 장비, 운용 경험을 갖춘 업체가 사업 일정 관리와 현장 대응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저케이블 포설은 일반 선박을 여러 척 투입한다고 해결되는 작업이 아니라 케이블을 싣고 해저에 직접 설치할 수 있는 전문 선박과 정밀 시공 역량이 필요하다”며 “서해안 HVDC 에너지고속도로처럼 대규모 사업이 본격화되면 1만톤 이상급 포설선과 운용 경험이 프로젝트 일정과 시공 리스크 관리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



## 5월 경상수지 386.1억달러 흑자... 역대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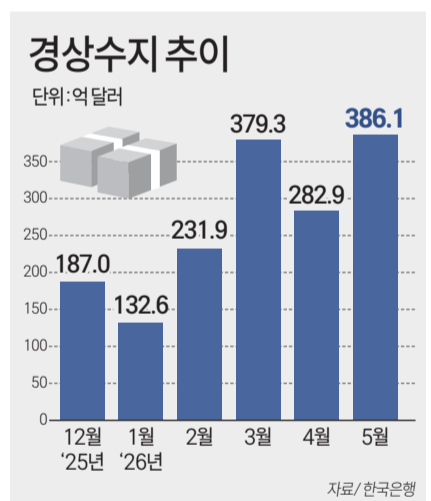
반도체 등 정보기술 품목 수출 호조  
상품수지 378.6억달러... 역대 1위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5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도 사상 최대 흑자를 냈고, 여행수지는 입국자 증가 영향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5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는 386억1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 282억9000만달러보다 흑자폭이 103억2000만달러 확대됐다. 이는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 3월 379억3000만달러를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경상수지 흑자를 이끈 것은 상품수지였다. 5월 상품수지는 378억6000만달러 흑자로 전월 338억8000만달러보다 확대됐다. 상품수지 역시 종전 최대치인 지난 3월 356억8000만달러를 웃돌며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세가 수입 증가세를 크게 웃돌았다. 5월 상품수출은 943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62.9% 증가했다. 상품수입은 564억8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22.2% 늘었다.

수출은 IT 품목과 비IT 품목이 모두 증가했다. 통관 기준으로 보면 IT 품목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128.9% 급증했다. 컴퓨터 주변기기와 SSD가 249.4%, 반도체가 167.7% 늘었다. 비IT 품목도 석유제품과 화공품, 철강제품 등을 중심으로 10.0% 증가했다.

수입은 원자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늘었다. 원자재 수입은 석유제품, 석탄, 화공품, 원유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보다 22.1% 증가했다. 자본재 수입도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 등을 중심으로 28.0%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0억9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흐름은 이어졌지만 전월 24억2000만달러 적자보다 폭이 줄었다. 여행수지는 5000만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입국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19.4% 늘어난 영향이다.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도 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본원소득수지는 21억7000만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배당소득수지가 11억5000만달러 흑자를 낸 영향이다. 한은은 전월의 계절적 배당지급 요인이 해소되면서 배당소득수지가 흑자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5월 누적 경상수지는 1412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상품수지는 1459억6000만달러 흑자였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



## “생산 차질·공급망 영향시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타격”

>> 1면 ‘임단협 난항 완성차...’서 계속

한국GM 노조는 9일 진행되는 13차 교섭의 상황을 지켜보며 투쟁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노조는 이날 오전 사측과 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르노코리아 노조는 “사측 제시안이 무성의를 넘어 노동자들을 기만했다”며 “교섭 결렬 선언 후 확대 단거 투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르노코리아 노조는 이르면 이번주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지난 4월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7일까지 12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추가 완성차 업계 임단협의 1차 교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성과급 요구가 영

업이익이나 순이익과 직접 연동되는 방향으로 가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며 “SDV와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경쟁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위한 자본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쟁 업체에 뒤처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간 접점을 찾지 못해 생산 차질과 공급망 영향으로 이어질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

## UBS “디스카운트 거래 가능성 매우 낮아”

>> 1면 ‘SK하이닉스 ARD...’서 계속

ARD이 보유·운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고 저렴해 헤지펀드 등에 한국 주식보다 매력적일 수 있고, 한국 상장주를 투자 유니버스에 두지 않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매니저들도 매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UBS는 노트에서 “첫날부터 예탁증서를 매수하고 국내(한국) 라인을 공매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라며 “디스크에 노출되는 달러 규모가 매우 제한적인 만큼 확장성이 뛰어나 디스카운트로 거래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한국 상장주 보유 비중이 낮은 글로벌 개인투자자들의 수요도 새롭게 유입될 요인으로 꼽힌다.

UBS는 “미국 증권사들이 해외 개인투

자에게 한국 주식 접근권을 제공하는 소식은 일부 있었지만, 이는 최근 일”이라며 “SK하이닉스에 대한 글로벌 개인투자자 보유 비중은 여전히 낮아 ARD이 접근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한국 주식과 ARD 간 상호 전환 가능 여부에 쏠려있다고 전했다. 완전한 상호교환이 불가능한 미국 상장 ARD는 본국 상장주보다 프리미엄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출 서류에 따르면 ARD 보유자는 이를 취소하고 이에 상응하는 한국 상장주를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보통주를 ARD로 전환하려면 한국당국의 승인 등이 필요할 수 있어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

# 수도권 밖 생산거점 첫발... 인력확보·이전협의, 성패 가른다

## AI 호남 반도체 시대

### ④ 생산지형 4축 재편

광주 군공항 826만㎡ 국유지 활용 구마모토식 지역경제 반전 기대 용수·광역교통망 등 강점 부각

전문인력 3만명 확보가 첫 과제 군공항 이전·무안 협의도 변수 정주 여건 갖춘 첨단도시 필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동부청사 나철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대만 당국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 3나노 반도체의 일본 구마모토(熊本) 공장 양산을 허용했다. 사진은 2024년 2월 12일 일본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에 새로 건설된 TSMC의 제1공장. /뉴스1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가 광주 군공항 일대로 확정되면서 40년 넘게 수도권에 묶여 있던 반도체 생산 지형이 4개 권역 체제로 재편될 발판이 마련됐다. 800조원 투자가 현실이 되면 호남은 지방 소멸 흐름을 되돌릴 산업 축을 갖게 되지만 인력 확보와 군공항 이전이 실현 가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3대 메가프로젝트가 완성되면 국내 반도체 지형은 수도권 연구개발·생산과 호남 메모리 전공정, 충청 첨단 패키징, 동남-대경 소부장 공급망의 4축 구도로 바뀐다. 1983년 기흥 팹 가동 이후 수도권 일대에 집중돼온 생산 기반이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분산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의 파급력은 일본 구마모토 사례가 보여준다. 대만 TSMC는 2024년 인구 4만여명의 농촌 기쿠요마치에 파운드리 공장을 가동했고 일본 정부는 1·2공장에 1조2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투입했다. 규슈경제조사협회는 반도체 설비 투자에 따른 규슈 지역 경제 효과를 10년

간 20조원(약 180조원)으로 추산했다.

공장 가동을 전후해 관련 기업 약 90곳이 공장 신·증설에 나서면서 고용 효과는 1만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고 인구가 줄던 기쿠요마치에는 해마다 500명 이상이 새로 유입되고 있다.

실제 일본 경제산업성 규슈경제산업국은 TSMC가 진출을 표명한 2021년부터 3년간 규슈에서 발표된 관련 기업의 설비 투자 계획이 74건, 2조5500억원 규모라고 집계했다. 1980년대 세계 반도체 생산의 10%를 담당해 실리콘 아일랜드로 불리다 쇠락했던 규슈가 공장 하나로 되살아난 셈이다.

원전 기반의 안정적 전력과 풍부한 용수가 입지 배경이었다는 점에서 구마모토의 조건은 호남과 유사하다. 호남 투자는 TSMC 구마모토 투자의 30배 규모로 계획대로 집행되면 인구 유입과 세수 확대

등 지역 경제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부지 조건은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광주 군공항 일대는 826만㎡ 규모의 국유지여서 토지 수용에 따른 지연 가능성이 없고 평탄화가 끝나 있어 조성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여의도의 3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여기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용연정수장과 가깝고 KTX 광주송정역 등 광역 교통망도 갖췄다. 공항 시설이 없는 탄약고 이전 예정부지 등을 우선 활용하면 군공항 이전 완료 전에도 팹 1~2기 착공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점검회의를 매달 열고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관건은 사람이다. 정부는 전문인력 3만명 확보를 목표로 남부권 반도체 연합공

대 설립과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 암(Arm)의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암 스쿨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 양성만으로는 팹 가동 초기의 숙련 인력을 채우기 어렵다. 경력 엔지니어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어 가족 단위 이주를 이끌 정주 여건도 뒷받침돼야 한다.

구마모토에서도 공장 가동 후 규슈 전역에서 연간 1000명 규모의 반도체 인력 부족이 전망되는 등 인력난은 지방 팹의 공통 과제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역별 차등 세제와 함께 교통·주거·교육을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을 지원책에 포함한 이유다.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전남대 등 지역 대학이 배출 기반으로 거론되지만 팹 4기 가동에 필요한 인력 규모에는 못 미쳐 수도권 인력의 이주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공항 이전도 넘어야 할 관문이다. 광

주 군공항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사용하는 군사시설이어서 산단 조성에는 이전이 선행돼야 한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고 이전후보지 지정과 주민투표, 무안군수의 유치 신청 절차가 남아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전일 입장문에서 반도체 산단 조성을 환영하면서도 "이전 지역에 대한 구체적 지원 사업과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광주 민간공항 선 이전과 1조원 규모 지원 등 3대 선결조건의 이행 방안을 요구했다. 광주 민간공항은 2027년 12월 완공 예정인 호남선 KTX 2단계 개통 시점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안과의 협의 속도가 산단 조성 일정을 좌우하는 구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날 민형배 시장 주재로 열린 첫 공개 간부회의에서 이른바 올해 말 착공해 2030년 양산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자문 결과를 공개했다. 다만 800조원이 업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집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팹 4기 전체가 완성돼 호남이 산업 축으로 안착하기까지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 구마모토가 유치 발표부터 가동까지 3년이 걸린 것과 달리 호남은 팹 4기와 기반시설을 새로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도.

민형배 시장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속도가 생명"이라며 "전력·용수 공급과 교통·물류망 구축, 인재 양성, 정주 여건 조성까지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동탄·기흥·구리 규제 후 '관망세'... 인접 비규제지 호가 상승

## 현장르포

매수문의 줄고 호가 하락제한 집주인 매물 회수 속 관망세

병점·다산 대체수요 기대 확산 교통 호재·생활여건 개선 영향



경기 구리시 구리역 일대. 8호선 연장 개통 이후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며 실거주 수요가 늘었다. /성채리 수습기자

정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묶은 이후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매수 문의는 줄었지만 집주인이 곧바로 호가를 낮추기보다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관망하는 모습이다. 인접 비규제지역인 화성시 병점구와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에서는 일부 호가가 오르며 대체 수요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교통 호재와 상권 형성 등 생활여건 개선이 규제 이전부터 가격을 밀어 올린 배경이란 분석이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들 지역의 집값이 단기간 빠르게 상승하는 등 과열됐다는 판단에서다.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가 제한된다.

### ◆ 동탄 "문의 줄었지만 호가 안 내려"

동탄 일대 부동산시장은 규제 이후 매수 문의가 줄었지만, 호가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분위기다. 동탄의 대장 단지로 꼽히는 우남퍼스트빌아파트 인근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반도체 셔틀버스가 다니는 입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호재가 많아 집주인의 기대심리가 여전히 높다"며 "가격이 조정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규제 가능성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동탄구가 분구된 이후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면서 3~4월부터 매도자들이 움직였고, 급한 매물은 상당수 소진됐다는 것. 동탄역 인근의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거

래가 계속 안 되고 급매물이 나오면 한두 건은 낮은 가격에 체결될 수 있겠지만, 연말이면 다시 오르지 않겠느냐는 반응이 많다"고 했다.

### ◆ 동탄 인근 병점 호가 꿈틀

동탄 외곽과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관심이 옮겨가는 흐름도 일부 포착된다. 화성시 병점구 '병점역아이파크캐슬' 전용 84㎡ 매물 호가는 규제 발표 전 7억6000만원에서 지난 5일 8억원으로 올랐다. 인근 '신동탄포레지아'의 같은 면적 호가도 9억7000만원에서 10억7000만원으로 뛰었다.

병점은 동탄구와 맞닿아 있고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와도 가까워 동탄의 대체지로 거론되는 지역이다. 병점역에서 서울 지

하철 1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GTX-C노선과 인덕원~동탄선 등 광역 교통망 확충이 예정돼 있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동탄구 목동이나 병점 등 덜 오른 지역의 대장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움직이고 있다"면서도 "동탄 핵심지에 있던 수요가 곧바로 하급지로 내려간다고 보기는 어렵고, 규제지역이라도 상급지를 찾는 흐름이 더 강하다"고 했다.

### ◆ 기흥·구리도 규제 후 관망세

용인 기흥구도 규제 이후 매수세가 주춤하다. 기흥구 매도자들도 호가를 낮추기보다는 매물을 회수하고 있다. 기흥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7월 세계편을 앞두고 5~6월에 거래가 반짝 늘었는데, 규제지역으로 묶인 뒤에는 문의가 뜸해졌다"고 했다. 그는 "규제 발표 이후 내렸던 물건을 거둬들이는 사례가 10건 중 3~4건 정도"라며 "전세 물량도 부족하고, 거래를 하는 사람은 결국 실거주자이기 때문에 가격이 쉽게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리시 역시 규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거래가 상당 부분 선행됐다는 분위기다. 구리시 인창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규제 발표는 어느 정도 예견돼서 거래될 만한 매물 상당수가 규제 전에 거래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8호선 개통으로 강남 출퇴근자의 선호가 강하고, 서울에서 온 수요자들은 아직도 구리를 싸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호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시는 올해 들어 아파트값이 빠르게 오른 지역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구리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6월 다섯째 주까지 올해 누적 8.2% 상승했다. 지난 3월 입주한 '구리역롯데캐슬시그니처' 59㎡가 13억원대에 형성돼 있다.

### ◆ "다산도 규제 전부터 올랐다"

구리와 맞닿은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도 호가 상승 움직임이 나타났다. 구리역과 가까운 'e편한세상다산' 전용 84㎡는 규제 발표 전 10억5000만원이던 호가가 10억8000만원으로 올랐고, '힐스테이트다산'의 같은 면적 매물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뛰었다.

현장에서는 '풍선효과'보다 생활권 가치가 높아지며 규제 이전부터 가격 상승세가 뚜렷했다는 설명이다.

다산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구리 규제 이후 손님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다산은 그전부터 꾸준히 오르는 지역"이라며 "8호선 교통 여건이 좋아지고 학원가와 상권이 형성되면서 실거주 선호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구리 규제 이후 손님들이 몰리면서 집주인들이 호가를 5000만원에서 1억원씩 올리려고 한다"면서도 "매도자들이 가격을 너무 올려 계약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metroseoul.co.kr



# ‘초고압·EPC’ 날개 달고, 글로벌 전력망 영토 넓힌다

(설계·조달·시공)



대한전선 당진해저케이블 2공장 조감도.



대한전선이 호주에서 초고압 케이블을 포설하고 있다.



대한전선이 장조장 지중 케이블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3일 (왼쪽부터)김준석 대한전선 부사장, 안나 목고콩 CIH 회장, 조 마동간다바 CIH 대표이사, 김대현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전선

데이터센터(AIDC) 확산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력망 투자를 대형화하고 있다. 전선산업에서도 초고압 기술력은 물론 설계·시공·유지관리까지 아우르는 프로젝트 수행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한전선은 초고압 해저케이블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생산거점과 시공 역량을 결합해 종합 전력망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고부가 초고압 프로젝트의 매출화는 실적에도 반영되고 있다. 대한전선의 지난 1분기 연결 매출은 1조834억원, 영업이익은 604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6%, 122.9% 증가했다. 에프앤가이드 기준 2분기 예상 매출은 1조720억원, 영업이익은 426억원이며 시장 일각에서는 영업이익이 458억원까지 늘 것으로 본다. 1분기 수주잔고도 사상 최대인 3조8000억원을 돌파했다.

## 10 대한전선



### ◆ 전력망 대형화에 HVDC 부상…초고압 기술 경쟁 가속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태양광·해상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도심 외곽과 해상으로 확대되면서 장거리 송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송전 손실을 줄이고 대용량 전력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초고압직류송전(HVDC)이 전력망 투자의 핵심 기술로 부상했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드마켓은 글로벌 HVDC 송전 시장이 지난 2024년 140억1000만달러에서 오는 2030년 220억7000만달러로 연평균 7.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정책인 'REPowerEU', 미국의 노후 전력망 교체, 국내 8GW 규모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세계 각국의 전력망 확충 움직임도 HVDC 시장 확대를 이끌고 있다.

대한전선이 당진 해저케이블 1공장에 이어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2공장 건설에 속도를 내는 배경도 이 때문이다. 2공장에는 640kV급 HVDC 해저케이블 생산설비와 국내 최대 규모인 187m 높이의 VCV(수직연속압출기) 타워가 구축된다. 대한전선은 525kV급 HVDC 케이블 시스템 시제품 공개와 전용 테스트센터 구축 등을 통해 기술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다.

장거리 송전 수요 급증… HVDC 부상  
내년 목표 당진 해저케이블 2공장 건설  
1463억 규모 초고압 전력망 사업 수주  
대한오션웍스 인수, 포설선 운영으로  
제품 제공 넘어 시공까지… 경쟁력 확보  
베트남에 400kV급 초고압 케이블 공장  
사우디·쿠웨이트 등에도 생산기지 구축

생산설비 확충과 기술 고도화는 초고압 전력망 프로젝트 수주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1463억원 규모의 '500kV HVDC 동해안-동서울 건설공사(EP2단계)'를 단기 방식으로 따냈다. 지난 4월에는 전라남도 신안군 태양광 발전사업에 154kV급 초고압 해저케이블과 접속재 등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해저케이블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

대한전선은 HVDC뿐 아니라 지중 초고압 교류(AC) 전력망 분야에서도 수주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호주에서 330kV급 케이블 시스템을 적용하는 450억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AIDC) 전력망 구축 사업을 수주하며 고부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넓혔다.

### ◆ 단산 납품 견어내고 'EPC'로…생산·시공 통합 밸류체인 강화

기술력 확보와 맞물려 발주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글로벌 전력청과 발전사업자들은 개별 케이블 기자재를 구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설계·조달·시공(EPC)을 일괄 발주하는 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해저케이블 시장에서는 전문 포설선(CLV) 부족에 따른 공기 지연 리스크가 커지면서 제품 제조를 넘



대한전선 당진케이블공장 전경. /대한전선

어 해상 시공 역량까지 갖춘 기업이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대한전선은 시공 역량 내재화를 통해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해저케이블 시공 전문 기업 대한오션웍스(옛 오션씨앤아이)를 인수해 해양 시공 역량을 확보한 데 이어, 국내 최초 해저케이블 전용 포설선 '팔로스호'와 1만급 CLV '스칸디나비아 터호'를 운영하며 프로젝트 규모와 해상 환경에 맞춘 투트랙 시공 체계를 구축했다.

생산과 시공을 아우르는 통합 역량은 해저케이블 사업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대한전선은 최근 전남 해남 태양광 발전사업의 154kV급 초고압 전력망을 풀 단기 방식으로 수주했다. 대한전선이 해저케이블 생산을 맡고 대한오션웍스가 운송·포설을 수행하는 구조로, 설계부터 생산, 포설, 접속, 최종 시험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한다.

지중 초고압 EPC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대한전선은 이날 호주 최대 송전 전력청인 트랜스그리드가 발주한 약 450억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AIDC) 전력망 구축 단기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330kV급 케이블 시스템의 설계·공급·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사업이다.

### ◆ 수출에서 현지 대응…안정적 공급·규제 대응 '글로벌 거점 전략'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GWEC)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각국이 관세와 현지 조달 규정 등을 활용해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하면서 전선 등 전력 인프라 기자재 공급망도 현지 생산 기반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발주처 역시 관세 부담과 사업 지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현지 생산기업을 공급망 파트너로 선호하는 추세다. 각국 정부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앞세워 글로벌 제조기업 유치에 나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한전선은 해외 생산 거점 확대가 전력 인프라 사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공급 역량과 현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생산법인 대한비나는 오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400kV급 초고압 케이블 공장을 건설 중이다. 완공 시 베트남 최초이자 유일한 400kV급 초고압 케이블 생산기지가 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생산법인 사우디대한은 걸프협력회의(GCC) 지역 최초이자 유일한 초고압급 케이블 접속기 생산기지로, 중동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 거점 역할을 맡고 있다. 쿠웨이트 생산법인 대한쿠웨이트는 현지 최초 광통신 케이블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생산법인 엠텍은 지난해 중저압(MV·LV) 케이블 생산시설 증설을 마치고 아프리카 전력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metroseoul.co.kr



metro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더 크게 자라날 아이들의 내일에 하나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뛰어놀며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나가 아이들의 내일에  
힘이 되겠습니다

## 올바른 금융 습관 형성을 위한 눈높이 금융교육 지원

- 어린이 경제 뮤지컬 공연 개최
- 어린이 금융교실 '하나 둘 셋, 금융아 놀자!' 운영

## 보육환경 개선 및 돌봄 공백 최소화

- 100호 어린이집 건립
-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운영

## 자연을 주제로 34년째 이어온 환경 미술대회

- 하나은행 자연사랑 어린이 미술대회 개최



# 송영길 '총선 필승' 내걸고 당권 도전... 당은 선호투표 공방

민주당 내 세 번째로 출마 선언  
'이심송심·당청동색' 핵심 기조  
'선호투표제' 두고 친명·친청 이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자신이 "총선필승 대표카드"라며 8·17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표를 던졌다. 국회 최다선(6선)인 송 의원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 고민정 의원에 이어 민주당 내 세 번째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으며, 차기 당 대표의 시대적 과제를 "이심송심(이재명의 마음이 송영길의 마음), 당청동색(黨靑同色)의 힘으로 민주당을 '구조적 다수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2030세대 청년과 함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송 대표는 "지난 6·3 지방선거는, 승리의 외피를 쓴 패배였다. 70%에 육박하는 지지율과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눈물로 만든 성과에도, 당은 압승에 실패했다"며 "위기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왔다. 위기는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그 해법도, 우리 안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집권여당다운 책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과 실력을 보여드려야 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증명하는, 진짜 여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뽀뽀 뭉쳐 하나로 뛰는 진짜 여당, 저 송영길이 만들겠다"며 당정일치를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친명(친이재명)계는 정청래 전 대표가 이끈 민주당이 청외대의 잇박자를 내왔다며 비판해온 바 있다.

송영길 의원은 "정권 재창출이 없으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다.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더 선명한 사람인

가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누가 국민의 마음과 신뢰를 이끌어내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 사람인가, 누가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대표인가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얼굴로 총선을 치러야 하겠나. 총선의 필승카드, 송영길이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애로와, 국정에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다. 원전 민주당, 총선에서 승리하는 민주당,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민주

당, 가슴 뛰는 승리의 역사를, 저 송영길 이 다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친청(친정청래)계 측은 당 대표 당선자 결정 방식으로 결정된 '선호투표'에 반발했고, 최고위원회의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이를 다시 논의해 다시 보고하도록 했다.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선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선호투표가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운 최고위원은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으로 무효"라며 "실무적으로 선호투표 방법은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선거 같은 선거에는 가능할 수 있지만 순회 투표를 하고 있는 당대표 선출 방식에는 맞지 않는 선거 방법"이라고 반발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룰을 갖고 시비를 할 생각이 없지만, 당헌·당규 위반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당원들 사이에서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며 "이 부분은 전준위나 최고위원회에서 현명하게 잘 결정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송영길 의원은 "존중한다. 결선투표 방식의 하나이고,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사표 방지 심리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모두가 (후보에게) 1표씩 찍는다면 두 사람이 좋는데 사표가 되지 않을까 하던

지지자들의 고민을 해소해준다. 누구든지 1등과 2등을 찍으면 합산해서 과반수가 당선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송영길을 찍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선호투표는 3인 이상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하위 득표자를 제외하고 최하위 득표자가 받은 2순위 표를 확인해 각 후보자의 득표수에 가산한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과 거리가 가까운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민주당 의원 중 한 명이 최하위 득표자가 되면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도 친명(친이재명)계 후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 불리한 투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 선출 방식 관련해서 어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1차적으로 선호투표제를 의결해서 발표했다"며 "아시겠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의 이견이 있어서 논의를 더 해야 할 것 같다.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준위는 9일 회의를 열고 당 대표 선출 결정 방법을 재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p7h285@metroseoul.co.kr



metro

## 법사위 대치에 멈춘 국회... 원 구성 '평행선'

국민의힘, 협의 거부하며 전면 보이콧  
민주 "법안 처리 위해 본회의 개최"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 원 구성 과제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법안통과 최종관문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국민의힘은 전면 보이콧(거부 운동)으로 맞섰다. 이 대치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국회가 사실상 '반쪽' 상태로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 캐비닛'에 출연해 "법사위원장 자리는 원내 제2당이 담당해야 한다고 한 것은 국회 관행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며 "(그러므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원 구성에 협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의원직 총사퇴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되면 투쟁 자체가 희화

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원내 소속끼리 만나서 조금씩 이야기는 나누고 있다"며 "중진 회의를 소집해서 향후 투쟁 방안에 대해서 중진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장 회의장 앞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민주당을 향해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승수 의원은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협박하며 국회 원 구성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실체를 똑똑히 보고 있다"며 "협상과 합의 정신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협박 정치"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법사위원장을 한나라당에 인계해 줬던 아름다운 전통은 완전히 깨졌다"며 "서영교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사법과 위원장"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진영에선 국민

의힘의 국회 원 구성 협조를 당부하며 나섰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한 상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무의미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점철됐던 전반기 국회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계류된 민생 법안이 모두 처리되도록 민주당 의원 전원은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법사위 위원과 소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며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회가 멈추면 피해를 보는 건 여당도 야당도 아닌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정부위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에 국회 정상화와 민생 입법 처리 협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

## 시장 변동성 점검... 국고채 발행 탄력 운영

>> 1면 '이달 중 '원화 국제화'서 계속

이에 과도한 시장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채권시장에서는 최근 국고채 금리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지만 대내외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등을 감안해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국고채 장기물 발행 비중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또 같은 날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밝혔다.

그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선정된 만큼, 인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전속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경부고속도로 건설, 정보기술(IT) 혁명보다 더 큰 역사적 의미가 있을 수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 총력전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글로벌 초

격차 경쟁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제도약 지원 대책, 철강산업 수요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회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25만개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를 활용에 위한 장후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AI 기반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수소환원제철과 10대 특수강 기술개발에 국비 약 5000억원을 투입하고, AI를 통한 공정개선과 안전전자 지원도 강화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공동 연구·생산·운용으로 협력 확대  
방산기업 연 15조 규모 시장 진출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7일(이하 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산포럼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과 나토의 방위산업 파트너십을 격상하자고 제안하며 우리 방산 기업과 기술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이 대통령은 김해경 여사와 수행단을 태운 공군 1호기 편으로 7일 오후 앙카라 에센보아 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앙카라 컨벤션센터로 이동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하고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을 추진하면서 방산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행정적 사항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연 15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 조달 시장에 한국 방산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에 대해 "탄약과 방산 원자재 사업 참여는 나토 간 무기 체계 간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는 한편, 우리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며 "우주 관련 사업 참여는 나토 동맹국이 보유한 우주 인프라를 활용해서 우리가 원할 때 적시에 우주 발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나토 방산 포럼에도 참석해 "단순히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영하는 한-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산포럼 제4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나토 방산포럼 네 번째 세션 기조연설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이 전력 비축유를 공동 관리하며 에너지 위기에 함께 대응하듯, 방위산업에서도 이러한 지혜가 발휘되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나토의 오랜 노후우와 합쳐진다면 양측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위산업 기반 그 자체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 대한민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며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지키는 안보 협력의 동반자로서 나토와 함께 더 안전한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LOTTERIA™

basil

mozzarella

tomato

pineapple

# MOZZARELLA BURGER

## CHEF EDITION

나폴리 맛피아 VS 삐딱한 천재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인상 후 첫 장마... 車보험 손해율 가능할 '시험대'

손보사, 올해 누적 손해율 84%대 통상 적으로 80% 안팎 손익분기권 장마철 침수·사고 늘어 변수 작용 손해율 악화시 보험료조정 근거 활용

자동차보험료가 5년 만에 올랐지만 손해보험사의 손해율 부담은 여전하다. 대형 손보사의 1~5월 누적 손해율이 이미 84%대에 머문 가운데 7월 장마와 집중호우가 보험료 인상 효과를 가능할 하반기 첫 변수로 떠올랐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 4곳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단순 평균 84.7%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9%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회사별로는 DB손보가 84.9%로 가장 높았고 KB손보 84.8%, 삼성화재 84.7%, 현대해상 84.2% 순이었다. 4개사 모두 84%대를 기록하면서 자동차보험 수익성



Chat GPT가 생성한 장마철 차량 침수 이미지.

에 대한 부담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고객이 낸 보험료 가운데 보험금으로 지급된 비율을 뜻한다. 업계에서는 통상 80% 안팎을 자동차보험 손익분기권으로 본다. 손해율이 손익분기권을 웃돌면 보험금 지급뿐 아니라 사업비 부담까지 반영되면서 수익성이 악

화된다.

손보사들은 올해 2월부터 자동차보험료를 1%대 인상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각각 1.4%, DB손보와 KB손보는 각각 1.3% 인상을 적용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5년 만이다.

문제는 인상 이후에도 누적 손해율이

뚜렷하게 낮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5월 한 달 손해율은 전년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누계 기준으로는 여전히 84%대를 기록했다. 보험료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에 장마철 사고 변수가 먼저 다가온 셈이다.

자동차보험은 손보사 입장에서 대표적인 대중성 상품이다. 시장 경쟁과 당국의 가격 관리 영향이 큰 만큼 손해율이 악화해도 보험료 인상으로 즉각 반영하기 어렵다. 정비요금, 의료비, 임금 등 원가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계절성 재해까지 겹치면 손익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7월부터는 장마와 집중호우가 본격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여름철에는 차량 침수와 빗길 사고가 함께 늘어난다. 침수 사고는 수리비 부담이 크고 전손 처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량 침수 피해는 7~8월에 집중됐다. 7~8월 침

수 피해액은 연평균 443억원으로 평시 203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고, 침수 피해 건수의 65%가 장마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보사들은 당장 보험료 추가 인상을 언급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자동차보험료 조정은 소비자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당국 협의와 사회적 여론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장마철 침수와 빗길 사고가 예년보다 크게 늘 경우 내년 보험료 조정 논의에서 손해율 악화가 주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됐지만 인상 폭이 제한적이어서 누적 손해율을 단기간에 낮추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침수와 빗길 사고가 집중되는 만큼 장마철 손해율 흐름이 하반기 자동차보험 수익성을 가르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 성북구 17억 국평에 '79점 청약통장' 등장

5인가족 만점점수 74점 보다 높아 동작국평 30억 단지에 68점 통장

서울에서 고분양가 논란에도 고가점 청약 통장이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에서 '국민평형'의 분양가가 17억원을 웃돌았지만 5인가족 만점으로도 부족한 79점 통장이 등장했으며, 동작구의 국평 30억 원 단지에는 4인가족 만점 수준인 68점 통장이 나왔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장위뉴타운 10구역을 재개발하는 '장위 푸르지오 마크윈'의 당첨자 최고 가점은 79점이다. 전용 84㎡로 5인 가족 만점인 74점보다 높다.

단지는 성북구 장위동 일원에 들어서며, 지상 35층, 23개동 총 1931세대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39~114㎡ 1032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됐다.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각각 15년이 넘을 경우 32점, 17점의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수는 2명(3인 가구) 15점 ▲3인 20점 ▲4인 25점 ▲5인 30점 ▲6인(7인 가구) 이상 35점 등으로 점수가 더해진다. 4인 가족이라면 무주택 기간에서 15년 이상으로 만점을 받아도 가점이 최대 69점이다.

장위 푸르지오 마크윈의 당첨자 평균 가점은 타입별로는 전용 46㎡가 67점으로 가장 높았다. 최고가 69점, 최저가 64점이었다.

분양가는 평형별 최고가 기준으로 ▲46㎡ 8억8240만원 ▲59㎡ 14억6060만원 ▲84㎡ 17억6570만원 등이다. 지난 2022

년 말 청약을 진행한 장위뉴타운 4구역 '장위 자이아이 레디언트'의 분양가는 전용 84㎡가 10억2350만원이었다. 불과 4년 만에 분양가가 70% 안팎으로 뛰었다.

노량진뉴타운 2구역을 재개발한 '드와인 아르티아'의 경우 당첨자 최고 가점은 4인 가족 만점에 가까운 68점이다. 평균 가점으로는 전용 59㎡가 63점으로 가장 높았다.

단지는 동작구 노량진동 일원에 들어서며, 지상 45층, 2개동, 총 404세대 규모다. 분양가는 평형별 최고가 기준으로 ▲59㎡ 22억6200만원 ▲84㎡ 27억6000만원에 달했다.

노량진뉴타운 분양가는 지난 4월 첫 분양인 6구역 '리클라체자이드라인'이 국민평형 기준 25억8320만원에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안성미 기자 smahn1@



김윤덕(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8일 전북KB금융타운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 자산운용 특화 '전북 KB금융타운' 개소

KB금융, 청년·중기·혁신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력·국가균형발전 기여

KB금융그룹은 8일 전북혁신도시에 '전북 KB금융타운'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성주 국민연금공단(NPS) 이사장, 조지훈 전주시장과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전북KB금융타운은 국민연금공단(NPS)을 중심으로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를 구축하고, 청년과 중소기업,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역 금융거점으로 조성됐다. KB금융은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창업과 기업 성장을 지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양 회장은 "전북KB금융타운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금융과 산업,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의 출발점"이라며 "청년과 중소기업, 혁신기업이 지역에서도 충분한 기회를 얻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금융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KB금융타운에는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자산운용 등 주요 계열사가 입주해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한 자산운용 업무를 지원하며, 금융 전문 인력과 혁신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

금융거점으로 운영된다. 이번 개소를 통해 현지 채용인력 약 150여명을 포함한 약 350여명의 KB금융그룹 직원이 전북혁신도시에 상주할 예정이다.

KB금융은 자산운용 중심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KB자산운용 전주사무소와 KB증권 전주 CIB센터 등을 비롯해 지역 주민과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증권 복합점포 ▲시니어 특화 금융 상담을 제공하는 KB골드라이프센터 ▲은행 채무조정 등 서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KB희망금융센터 ▲AI 기반 비대면 자산관리 상담센터 등을 운영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인 'KB이노베이션 HUB'를 중심으로 계열사 협업과 투자 연계를 확대한다.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선순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의 강점인 기후·에너지·농생명 분야와 연계한 기후테크 벤처기업 육성 펀드에도 신규 투자한다. 이를 통해 탄소저감, 재생에너지, 스마트농업 등 유망 기업의 지역 내 창업을 촉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과 컨설팅, 금융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안성미 기자 smahn1@

## "서리풀 1·2지구 주택착공 1년 앞당겨라"

이성훈 LH사장, 현장점검 2028년 목표, 내년 상반기 승인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성훈 사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를 방문했다.

8일 LH에 따르면 이 사장은 서리풀 1지구와 2지구를 차례로 찾아 현장을 점검했으며, 발표된 계획보다 주택착공 일정을 과감하게 1년 이상 앞당기도록 지시했다.

서리풀 지구는 서울권 주택공급 확대의 상징적 사업이다. 1지구(1만8000호·2월 지정)와 2지구(2000호·6월 지정)를 합쳐 최대 2만호 공급이 예정돼 있다.

LH는 이달 1지구에 대한 지구 계획을 신청하고, 2028년 주택착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승인 및 하반기 보상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리풀 지구 주민들의 반대·준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며 보상·이주 등 현안을 지속적으로



8일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현장에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오른쪽)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LH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LH는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 확대와 신혼부부·출산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 신설 등 특화형 주택을 병행 공급해 서리풀 지구를 정부의 새로운 주거정책의 실행 모델로 만든다는 전략이다.

이 사장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이 서울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안성미 기자

## BNK금융 생산적·포용 금융 확대 부울경 도약 프로젝트

BNK금융이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경제의 발전이 곧 BNK의 성장이라는 기치 하에 기업과 서민을 아우르는 복합 금융지원을 적극 공급한다.

BNK금융그룹은 8일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울경 기업지원센터(가칭)' 및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생산적금융과 포용금융을 확대하는 '부울경 경제 도약BNK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결정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경제의 발전이 곧 BNK의 성장'이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지자체 정책과 연계한 금융지원 ▲지역 전략산업 협업 확대 ▲생산적금융·포용금융 과제 발굴 등 추진 목표를 선정했다. 지역 경쟁력 개선과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삼성, 와이드형 폴더블 공개 임박 애플 첫 폴더블 아이폰 정면대결

갤럭시 언팩 초대장 배포  
'새로운 형태' 문구 담겨  
노태문 사장, AI 경험 강조



갤럭시 언팩 2026(Galaxy Unpacked July 2026: A New Shape Unfolds) 초대장 이미지.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이달 영국 런던에서 '갤럭시 언팩 2026'을 열고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한다. 그동안 유지해온 폴드·플립 양대 체제를 처음으로 깨고 가로 폭을 넓힌 '와이드형' 폴더블을 투입하는 것이 핵심으로 올가을 첫 폴더블 아이폰을 내놓는 애플과의 격돌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8일 'A New Shape Unfolds(새로운 형태가 펼쳐진다)'라는 문구를 담은 갤럭시 언팩 초대장을 배포했다. 언팩은 오는 22일 오후 10시(한국시간) 런던 올드 빌링스게이트에서 열리며 삼성닷컴과 삼성전자 뉴스룸,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세로는 짧고 가로는 넓은 이른바 '여권형' 화면비의 와이드형 디자인을 기본형 '갤럭시 Z 폴드8'(가칭)에 적용하고 기존의 길쭉한 북타입은 S펜을 지원하는 초고성능 모델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가 이어받는 방

식으로 라인업을 이원화한다. 기본형 폴드8은 외부 5.4인치·내부 7.6인치 화면에 펼쳤을 때 화면비가 4대3에 가깝고 무게는 역대 폴드 중 가장 가벼운 200g 안팎이 거론된다. 삼성전자는 런던 언팩서 갤럭시 Z 플립8과 갤럭시 워치9 시리즈, 갤럭시 워치 울트라2도 함께 공개할 전망이다. 새 폼팩터는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과 사실상 같은 체급이다. 애플은 오는 9월 아이폰18 프로 시리즈와 함께 첫 폴더블 아이폰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접었을 때 5.5인치 안팎이며 펼쳤을 때 7.8인치의 4대3 화면비가 유력해 삼성의 와이드형 폴드8과 형태가 사실상 겹친다. 삼성이 애플의 진입 경로를 먼저 차단하는 맞불 전략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관건은 가격이다. 반도체 가격 상승과 대형 디스플레이, 힌지 등 높은 제조비용이 겹치며 가격 인상 압박이 커진 상태다. 전작 폴드7 256GB 출고가가 237만 93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폴드8 기본형은 250만원, 울트라는 300만원을 웃돌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애플 폴더블 아이폰 역시 300만원대 가격이 거론되며 양사 모두 흥행의 최대 변수는 출시가가 될 전망이다.

한편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부장(사장)은 초대장과 함께 낸 기고문에서 "가장 중요한 AI는 가장 똑똑한 AI가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는 AI"라며 이번 언팩에서 개인화된 AI 경험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QR코드

koogija\_tea@metroseoul.co.kr /구남영 기자 metro



현대차그룹의 제주도 V2G 실증 시범서비스 참여 고객의 제주도 눈세길 소재 자택에 설치된 양방향 충전기를 기아 EV900이 이용하는 모습.

## 현대차그룹, 일상공간 V2G 운영 성과 입증

실제 상용화 기대감 높아

현대자동차그룹이 연구소나 시험 환경을 벗어나 일반 생활 공간에서 V2G(Vehicle-to-Grid) 운영의 성과를 입증하며 실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다만 V2G 기술을 소규모 발전·저장 자원으로 분류하는 분산에너지 규정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제주도에 V2G 시범 서비스에 참여하는 일반 고객 가정의 양방향 충전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전기차와 전력망 간 충전·방전을 성공적으로 구현했다. 현재 현대차 아이오닉 9와 기아 EV900을 보유한 고객 40명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의 가정용 V2G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V2G는 전기차 배터리와 전력망을 연결해 전력을 양방향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다. 전력 수요가 낮은 심야 시간에는 차량을 충전하고,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에는 차량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전력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전기를 이동 수단을 넘어 분산형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할 수 있어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력망 운영 효율 향상과 에너지 안보 강화 측면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제성과 확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10kW급 양방향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10만 대가 1시간 동안 동시에 방전하면 최대 1GW 규모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는 대형 발전 설비 1기의 출력과 맞먹는 수준이다.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2030년 약 420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

금 V2G가 보급될 경우 대규모 유연 전력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전의 산식을 적용하면 전기차 420만 대는 1GW급 발전 설비 42기에 해당하는 전력 자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를 양수발전으로 구축하려면 약 84조 원이 필요하지만 V2G는 약 5조 4600억 원 수준으로 구축이 가능해 투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구축 기간도 양수발전은 7년 이상, 고정형 배터리 저장장치(BESS)는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반면 V2G는 기존 차량과 충전기를 활용해 1개월 안팎이면 가능하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실증을 통해 충전기 연결 빈도와 시간대별 이용 패턴, 배터리 방전 수명도 등을 분석해 상용 서비스 모델과 고객 보상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새만금 AI 수소 시티 등 V2G 기반 에너지 신사업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내 법적·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국내 전력시장에서는 전기차가 전력시장 참여 주체나 분산에너지 자원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전력을 공급하더라도 이에 대한 공식 인정과 정산이 어렵다. 거래 참여 자격이나 전력 공급 대가 산정 기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지 않았다.

산업계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V2G를 국가 전력망을 보완하는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내 시장도 제주 실증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전기차의 전력 시장 참여 및 정산·보상 기준 등 법적 기반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전력기기업계 AI 특수 ... 2분기 호실적 전망

초고압변압기 등 해외수주 증가  
생산능력·납기관리 실적변수 작용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등 국내 전력기기 3사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증설과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를 등에 업고 2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북미 빅테크 기업들의 전력 인프라 투자가 초고압변압기와 배전기기 발주로 이어지는 가운데 호주와 유럽에서도 송전망 보강 사업이 확대되면서 하반기 수주 흐름도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8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9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압변압기 등 전력기기 중심의 해외 수주가 늘고 고가진 제품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호주에서도 대형 수주를 확보했다. 지난 2일 호주 빅토리아주 송전망 운영사 오스넛과 약 3100억원 규모의

전력기기 공급계약을 맺고 향후 5년간 초고압변압기와 리액터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

북미 시장에서도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올해 초 북미에서 7870억원 규모의 전력기기를 수주했다. 업계에서는 효성중공업의 올해 상반기 북미 누적 수주액이 2조 5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도 2분기 실적 확대가 예상된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28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85%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초고압변압기 등 고부가 전력기기 매출 비중이 늘면서 수익성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HD현대일렉트릭은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는 최대 1조 1212억원 규모의 배전기기 및 전력기기 장기 공급 기본계약을 맺었다. 제품은 북미 지역에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에 2028년까지 순차 공급될 예정이다.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수요가 변압기뿐 아니라 배전기기와 회전

기기 등으로 넓어지면서 공급 범위도 확대되는 흐름이다.

이를 반영해 HD현대일렉트릭은 올해 수주 목표도 기존 42억 2200만 달러에서 51억 8500만 달러로 22.8% 상향 조정했다.

LS일렉트릭도 2분기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5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8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6월 미국 빅테크 기업과 북미 AI 데이터센터용 38kV급 고압 배전 시스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수주 규모도 1조 2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됐다. 이로 전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맞물리면서 초고압변압기와 배전기기 발주는 당분간 견조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전력기기는 제작 기간이 길고 고객사별 사양 차이도 큰 만큼 수주잔고를 매출로 연결할 생산능력과 납기 관리가 하반기 실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 LG전자, 산업현장 공정열 시장 공략

아진P&P에 히트펌프 시스템 공급

LG전자가 100℃ 이상의 고온수를 공급하는 대용량 산업용 히트펌프를 국내 제지공장에서 상용 가동하며 산업 현장 공정열 시장 공략에 나섰다. 히트펌프는 전기로 공기·물·폐열 등의 열을 회수해 냉난방과 온수 생산에 활용하는 설비다. 가정·상업용 중심이던 사업 영역을 화학 연료 보일러가 담당해 온 제조업 열원 시장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8일 LG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대구 소재 제지기업 아진P&P에 1000RT(냉동톤·냉방능력단위)급 대용량·대온도 차 산업용 히트펌프 시스템 공급을 완료하고 이달 초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R&D)·국책과제로, LG전자를 포함한 15개 산학연이 2023년부터 공동 추진해 왔다. 과제는 고온·저온 온도차 70℃ 이상, 고온 공급온도 108℃ 이

상의 대용량 히트펌프를 개발해 제지 건조 공정에서 실증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에 공급된 제품은 약 90℃ 수준이던 기존 산업용 히트펌프의 출수 온도를 108℃(최대 118℃)까지 높이고 냉방용량은 최대 1040RT를 구현했다. 100℃를 넘는 고온수는 종이 건조가 필수인 제지공장을 비롯해 식품공장 살균 공정, 정유 등 그간 가스·스팀보일러에 의존해 온 산업 공정에 적용할 수 있다. 화석연료 연소 대신 전기 에너지와 폐열 회수를 활용하는 만큼 탄소배출과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구남영 기자

## 삼성전자, 기업용 SSD 'PM 1763' 양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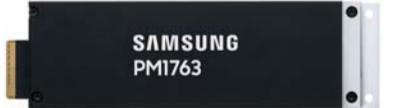
AI 인프라용 메모리 시장 공략

삼성전자가 차세대 AI 데이터센터를 겨냥한 PCIe 6.0 기반 기업용 SSD(eSSD)를 양산하며 AI 인프라용 메모리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AI 서버의 데이터 처리 성능과 전력 효율을 높인 제품으로 글로벌 고객사 확대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AI 인프라에 최적화된 PCIe 6.0 기반 기업용 SSD(eSSD) 'PM 1763' 양산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제품에 9세대 V낸드와 4나노 기반 신규 컨트롤러를 탑재해 제품 성능과 전력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번 제품은 4TB(테라바이트), 8TB, 16TB의 3가지 용량으로 제공되며, 이 중 16TB 제품은 업계 최고 성능을 구현했다. 16TB 제품 기준 연속 읽기·쓰기 속도



삼성전자 PM1763 제품. /삼성전자

는 각각 최대 초당 2만 8400MB(메가바이트), 2만 1900MB로, 전작 'PM1753' 대비 약 2배 향상됐다.

PM1763은 차세대 AI 서버에 적용되는 액체 냉각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쿨드 플레이트를 소자에 부착하는 D2C 냉각 방식을 활용해 고부하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장시간 최고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전작 대비 전력 효율이 1.8배 이상 향상돼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 “상생 이어지길”... 4000억 환급 혜택에 전통시장 활력 기대

## 프로 삼성 ‘온누리 페스티벌’

구매액 최대 30% 상품권 환급 설치·신청 거쳐 순차 지급 진행 상인들 “소비 활성화 도움 기대”

비수기 겹쳐 체감 효과는 아직 가격 할인 선호·사용처 한계도 골목상권 상생 효과 확산 주목

“이제부터가 기대되죠.”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만난 상인 정연태씨(63)는 삼성전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손님들이 늘긴 늘었다”며 “기업들이 상품권 연계 행사를 계속해 준다면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8일부터 이달 5일까지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열고 행사 기간 제품을 구매하고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차현정·이승혁 기자

품권으로 환급했다. 국군 장병과 경찰·소방·교정공무원 등 ‘K-히어로’ 고객에게는 30% 혜택을 제공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로 약 4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소상공인에게 흘러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제품 구매 직후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설치와 환급 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아직 행사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이르지만, 실제 상품권 사용이 본격

격화되면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오전 찾은 망원시장은 무더위와 여름철 비수가 겹치며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다. 다만 시장 곳곳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장을 보러 나온 주민과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이어졌고 일부 점포 앞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는 모습도 보였다.

상인 송모씨(50대)는 “날씨도 덥고 비수

기라 손님 자체가 많지 않은 시기”라며 “대기업의 온누리상품권 연계 행사가 더 알려지고 혜택도 확대되면 이용객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 상인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상인 김건희씨(27)는 “환급 신청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며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더 늘어 전통시장 소비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행사를 진행하는 기업에서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방법을 보다 자세하게 안내하면 더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소비자 반응이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일부 소비자들은 상품권보다 제품 가격을 직접 할인하는 방식이 체감도가 높고, 사용처가 제한되는 점은 아쉽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상인들은 상품권이 실제 지급되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 씨는 “기업과 시장이 함께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며 “이런 상생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은종망원시장상인회장은 “여름철은 비수기지만 삼성전자가 약 4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만큼 실제 시장에서 사용된다면 점포마다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기업이 상생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마련한 점은 시장 입장에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삼성전자가 밝힌 ‘5조원 사회 기여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삼성전자는 약 4000억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행사 기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홍보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창녕전통시장과 충주 자유시장·무학시장 등 주요 전통시장에는 행사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고, 환급 혜택과 신청 방법을 담은 안내물을 배부하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에 나섰다. 행사 기간 내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오는 9월 5일까지 제품을 수령·설치하면 같은 달 30일까지 삼성닷컴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차현정·이승혁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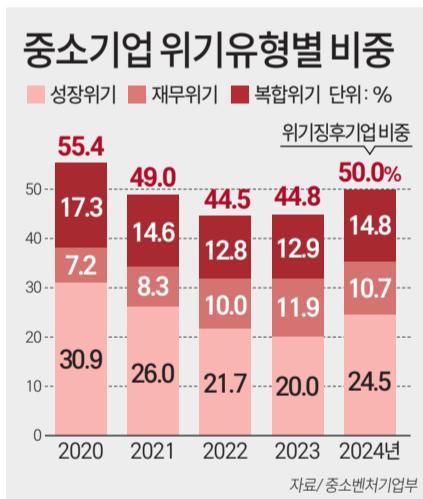
## AI로 25만 중소기업 위기징후 사전 포착

중기부, 재도약 지원 대책 발표 위기징후지수 4단계로 분류 예비경보·경보 기업에 알림 제공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을 구축해 25만개 기업에 대한 위험징후를 사전에 포착, 위기를 빠르게 알려준다. 전국에 있는 34곳의 재도약지원센터를 통해 위기현황 진단·성장성 확인을 거쳐 성장성이 있는 곳중 재무위기 기업은 구조개선을, 성장 위기가 있는 기업은 사업전환을 각각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을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성장 둔화와 수익성 악화로 인해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이 1미만인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등 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한계중소기업 비중은 2020년 6.5%에서 2022년 7.9%로, 2024년에는 8.8%까지 늘었다.

중기부가 한국평가데이터(KODATA)를 통해 재무정보 확인이 가능한 법인 중소기업 약 11만 개사를 분석한 결과 2024

년 기준 절반가량인 5만5000개사가 성장과 재무 측면에서 위기를 겪거나 징후를 보였다.

재무위기 기업 중 한계기업(9700개사, 8.8%)의 45%는 매출이 늘고 있어 적기에 구조 개선을 지원할 경우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상당했다.

중기부는 우선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용자기업 부실징후 조기 경보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을 6만개사에서 25만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성장과 재무위기 징후까지 탐지해 알리는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을 구축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별 위기징후 지수를 정상·주의·예비경보·경보 등 4단계로 도출한다. 예비경보·경보단계 기업에는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위기상황 알림과 재도약 지원제도 정보를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BMW iX3 차량.

/양성운 기자

## “흔들림 줄인 프리미엄 주행 체감”

### YG의 CAR TALK

#### BMW 더 뉴 iX3

울컹임 줄이고 부드러운 승차감 구현 슈퍼브레인 기반 정속·안정성 강화

BMW가 새롭게 출시한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더 뉴 iX3’는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하며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을 제시했다.

BMW의 새로운 디자인과 대폭 강화된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미래 기술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노이어 클라썬’을 적용하며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최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와 영종도 일대에서 ‘더 뉴 iX3’를 직접 주행하며 기존 전기차와 차별화된 성능을 경험했다.

우선 전기차 특유의 경쾌한 가속감과 BMW 특유의 민첩한 움직임은 유지했다. 특히 가장 큰 매력은 기존 전동화 모델의 아쉬움으로 지적된 울컹임은 느껴지지 않았다. 차체 움직임은 기존 전기차보다 한층 부드러워졌다. 이같은 차별화는 더 뉴 iX3의 핵심 기술인 4개의 고성능 컴퓨터 전체를 컨트롤하는 ‘슈퍼브레인’이 자리하고 있어 가능해졌다.

실제 공도를 주행해보니 더 뉴 iX3는 전기차답게 실내 정속성은 뛰어났다. 영종도 일대를 주행하는 동안 더 뉴 iX3는

저속과 고속주행에서 모터 구동음은 느껴지지 않았으며 노면 소음과 진동, 풍절음은 완벽하게 걸러냈다.

고속방직터이나 불규칙 노면에서도 차량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민첩하게 이동했다. 또 앞차와의 간격 조절도 부드럽게 가속하며 일정 거리를 유지했다.

가속 성능은 전기차답게 빠르게 반응했다. BMW에 따르면 더 뉴 iX3는 최고출력 469마력, 최대토크 65.8kg·m,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9초다.

주차장에서는 운전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파킹 어시스턴트’를 실행한 뒤 모니터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운전자가 주차공간을 선택하면 차량이 스스로 주차선에 맞게 주차한다. 또 주행 중 정체 구간에서는 앞차의 움직임을 파악해 자연스럽게 주행을 이어갔다.

일반 도로 주행 이후 진행된 서킷 주행에서 차량의 밸런스를 확인하기 위해 차체 위에 워셔액을 담은 컵을 올린 상태로 슬러럼 코스를 주행했다. 출발 전 450ml의 워셔액이 담겨 있던 플라스틱 컵을 차체 위에 올리고 주행했다. 코스에 설치된 콘을 피하기 위해 좌우로 크게 흔들리며 주행했지만 주행 후 컵에 담긴 워셔액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채 컵에 담겨 있었다. 차체의 흔들림에 액체가 쉽게 넘칠 수 있지만 안정적인 주행을 유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성운 기자 ysw@

## LX판토스, 글로벌 사업장 ESG 경영 확대

2026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이용호 LX판토스 대표(사진)는 “회사는 ‘Value Deliverer for People and the Planet’ (사람과 지구를 위한 가치 전달자)이라는 비전 아래 ESG 경영과 정도경영을 전사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친환경 운송수단 도입과 에너지 전환, 협력사와의 상생, 투명한 지배구조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 대표는 LX판토스가 8일 펴낸 ‘2026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을 지지하고 이에 따른 환경책임 및 기업윤리, 근로자의 인권존중,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LX판토스는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한 9개 핵심 중대 이슈인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에너지 ▲친환경 물류 서비스 ▲소비자 가치 경영 ▲임직원 관리 ▲정보보안 ▲리스크 관리 ▲사업행동 ▲신성장 동력 및 사업 다각화 등에 대한 설명과 각 이슈별 대응 방향 및 주요 성과들을 담았다.

특히 올해 보고서에서는 해외사업 비중이 높은 LX판토스의 기업 특성을 반영해 보고 범위를 글로벌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했다. /김승호 기자

## 대한전선 호주 AIDC 전력망 수주

대한전선이 호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망 구축 사업을 수주하며 글로벌 고부가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있다. 대한전선은 호주 최대 송전 전력청인 트랜스그리드(Transgrid)가 발주한 AI 데이터센터(AIDC) 전력망 구축 토크 프로젝트 수주했다고 8일 밝혔다. 수주 규모는 약 450억원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호주에 건설 중인 AI 데이터센터에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한전선은 330kV급 케이블 시스템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턴키 방식으로 수행한다.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되는 대규모 설비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원민희 기자 whk@

NARA CELLAR

# 역시! 몬테스



#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해외 자본, 투자 넘어 직접 경영까지... 흔들리는 'K-게임'

카카오게임즈, H 라인야후 체제로 위메이드, M 알리바바 투자사 매각 개발력·IP 경쟁력 등 높은 평가에도 국내 게임사 기업가치 하락 영향 글로벌 수익성 중심 재편 우려

외국자본이 국내 게임업계의 경영권까지 확보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K게임 산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과거에는 전략적 투자나 재무적 투자에 머물렀던 해외 자본이 이제는 최대주주에 올라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게임사들의 기업가치가 낮아진 상황에서 글로벌 자본이 한국 게임산업의 개발력과 지식재산권(IP)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 주요 게임사를 둘러싼 대형 인수합병(M&A)의 주체는 대부분 해외 기업이나 해외 자본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카카오게임즈다. 카카오는 게임사업 경쟁력 강화와 그룹 사업 재편 과정에서 일본 라인야후에 카카오게임즈 경영권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국내



/AI가 만든 이미지

대표 게임사 가운데 하나였던 카카오게임즈가 사실상 일본 자본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위메이드 역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박관호 의장이 보유 지분을 중국 알리바바 계열 투자사에 매각하기로 하면서 최대주주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블록체인과 게임을 함께 육성하는 위메이드의

사업 구조를 감안하면 단순한 지분 거래를 넘어 글로벌 사업 전략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주목할 부분은 해외 자본의 성격이다. 과거에는 텐센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처럼 성장 가능성을 보고 지분을 투자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경영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 재무적 투자 성

격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거나 경영권 자체를 인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투자자가 아니라 경영 주체가 되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배경으로 국내 게임사의 기업가치 하락을 꼽는다. 신작 흥행 부진과 실적 둔화, 게임산업 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주가는 수년 전과 비교해 크게 낮아졌다. 반면 해외에서는 한국 게임사의 개발력과 글로벌 서비스 경험, 검증된 IP 경쟁력은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 자본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게임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여기에 AI와 블록체인 등 신사업도 인수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게임 개발 역량뿐 아니라 생성형 AI 기술과 웹3 사업 경험까지 함께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게임사는 단순 게임회사를 넘어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게임 시장은 대형 퍼블리셔 중심으로 재편되는 추세다. 대규모 개발비와 마케팅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력이 필요하고, 글로벌이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플랫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게임사들이 독자적으로 경쟁하기보다 해외 자본과 손을 잡는 사례가 늘어나는 배경이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영권이 해외로 넘어가면 투자와 개발 방향이 국내 산업 생태계보다 글로벌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핵심 개발 조직 이전이나 인기 IP의 활용 전략이 해외 본사 중심으로 결정될 경우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한국 게임사의 개발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정작 기업가치는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해외 자본의 인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글로벌 게임 시장이 대형 자본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국내 게임사들의 기업가치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해외 자본의 경영권 인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 SKT, 내년까지 전국 'T 월드' 매장에 AI 도입

매장 별점 공개 시스템 도입 맞춤형 매장 검색 기능 구현 AI 상담 분석 단계적 확대

SK텔레콤이 2027년까지 오프라인 전 매장을 대상으로 AI 전환에 나선다. 고객은 전국 어디서나 균일한 서비스 품질을 경험하고 현장 직원들은 업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전국 T 월드 매장에 인공지능(AI)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9월부터 매장용 AI 에이전트 등을 도입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 2027년까지 매장 탐색과 대면 상담 등 고객 경험을 AI 기술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먼저 고객이 쉽게 매장을 찾을 수 있고



SK텔레콤이 2027년까지 오프라인 전 매장을 대상으로 AI 전환에 나선다.

록 매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T월드 홈페이지와 앱에 별점 공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음성인식(SIT) 기반의 AI 콜 서비스를 활용해 고객의 만족도와 추

천도를 조사한 '고객 추천 지수'를 별점 형태로 알기 쉽게 나타냈다.

온라인 T월드에서 맞춤형 매장 검색 기능도 구현한다. AI로 수집한 고객 경험 데이터와 매장 데이터를 결합·활용한다. 이

를 통해 고객은 단말기 제고와 혜택 정보, 매장 특성 등 원하는 조건의 매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대면 상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AI 상담 분석' 기능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상담 내용을 AI가 자동으로 분석하고 요약해주는 서비스다. 현재 전국 300여개 매장에서 안심 상담 녹음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온라인 상담 및 방문 예약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고객이 사전에 방문 목적을 예약하면 매장에서 필요한 안내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상담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점주 및 T크루 전용 AI 에이전트 활성화도 오는 9월 시범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매장의 강·약점 진단, 매장 간

비교 분석, 효율적인 인력 운영 등 맞춤형 매장 컨설팅을 제공한다.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한 의사 결정을 도와 업무 부담을 줄일 전망이다. 또 매장 운영 효율을 높이고 고객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텔레콤 공식 인증 매장에서 근무하는 T크루용 AI 에이전트는 고객 상담 중 필요한 업무 지식을 실시간으로 답변하고 직원의 취약 상담 영역을 진단해 개선 방향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전반적인 상담 역량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숙지해야 할 지침도 AI 에이전트가 실시간 지원한다. 직원들의 학습 부담을 덜고 정확한 응대와 고객 관리에 집중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최종 목표는 서비스 품질의 상향 평준화다. 고객이 원하는 T월드 매장 정보를 신속하게 찾도록 돕고, 전국 어느 매장을 방문하더라도 균일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다.

/조민선 기자 msjo@

## 네이버, AI 서비스 전 과정 관리한다

AI 안전성 체계 'ASF 2.0' 공개

네이버가 이용자들의 안전한 인공지능(AI) 서비스 경험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한 AI 안전성 체계 'ASF 2.0'을 공개했다.

네이버는 8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인공지능안전 서울 포럼(SFASS)'에서 ASF 2.0의 방향성과 구성 요소, 강화된 분류·관리·실행 체계 및 향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ASF 2.0은 네이버가 지난해 AI 서울 서밋에서 공개한 ASF를 고도화한 AI 안전성 관리 체계다. 기존에는 AI 기술 모델의 성능과 위험 수준을 중심으로 안전성을 관리했다면, 이번에는 실제 사용자가 경험하는 AI 서비스 전반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는 AI 서비스의 기획과 개발, 출

시, 운영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멀티모델 기반 서비스 환경을 반영했다. 기존 성능 중심 평가 체계도 맥락, 활용 사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를 위해 AI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유형별로 관리하는 'AI 위험 분류 체계'와 서비스 활용 범위와 예상 영향을 평가하는 'AI 영향 평가 매트릭스'를 도입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안전성 평가와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서비스를 관리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ASF 2.0이 서비스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전사 실행 체계인 'CHEC 2.0'도 마련했다. 지난 6월 선보인 AI팀 역시 설계부터 출시까지 CHEC 2.0을 적용해 안전성을 점검했다.

/최빛나 기자

## LG U+, '휴대폰 안면인증제' 활성화

남대문점서 시연 진행 3초 만에 본인 인증 완료

LG유플러스가 '휴대폰 안면인증제' 활성화에 나섰다. 이날 LG유플러스 남대문점에서는 회사 측이 마련한 휴대폰 안면인증 시연이 진행됐다.

직원 안내에 따라 신분증 확인 후 고객 본인의 휴대폰으로 얼굴을 인식했다. 얼굴 위치를 맞춰 달라는 안내 문구에 따라 좌우로 인식하면 약 3초 만에 인증이 완료된다. 패스앱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은 '브라우저로 확인하기'를 통해 인증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이날 시연을 진행한 LG유플러스의 오펜팅 컨슈머DX 담당은 "패스를 통한 가입과 브라우저를 통한 가입은 보안상 차이가 없다"며 "시스템은 이동 통신 3사가

모두 같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지난 6일부터 대면·비대면 채널에 안면인증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며 시스템 인식률과 현장 운영 절차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이통3사 308개 대리점을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정보보호 전문기관을 통한 보안성 점검도 진행했다.

한편 본인 확인 절차는 앞으로도 계속 고도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8월 중 대체수단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의 위변조 여부 확인을 본인 확인 절차와 자동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조민선 기자

## 삼성SDS 성과급 인사개편 무산 직원투표 과반 못미쳐

삼성SDS의 성과급 제도과 관련한 인사제도 개편이 무산됐다. 임직원 찬반 투표에서 과반 이상 동의에 미치지 못해서다. 이에 인사 제도는 현행 대로 운영한다.

8일 삼성SDS에 따르면 성과급 개편과 관련한 임직원 투표 결과, 전체 기준 최종 동의율은 40%에 그쳤다. 투표에 참여한 55.6% 중 동의율은 71.9%로 나타났다.

성과급 개편 내용은 연봉의 20%를 자사주로 지급하고, 기존의 현금 목표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것이다. 다만 일부 직원 사이에서 주가와 같은 시장 변수에 따른 보상 규모 변동과 퇴직금 산정 기준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인사제도 개편 무결로 인해 향후 보상과 관련한 논의는 노사 교섭 테이블로 옮겨갈 전망이다. /조민선 기자

# 반도체 랠리에 국민연금 '잭팟'... 주식 평가액 190조 늘었다

상장사 270곳 평가액 486조118억  
삼전·하이닉스 비중 55.7%로 증가  
4월까지 기금 운용 수익률 14.18%



따능시로 생성한 관련 이미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올 2분기 급등하면서 국민연금의 상장사 주식 평가액이 한분기 만에 20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진다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더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봤다. 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해 공시한 상장사 270곳의 주식 평가액은 486조11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말(296조4433억원)보다 189조5684억원 늘었다.

### ◆국민연금 반도체로 돈벌어

국민연금 주식 평가액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반도체 대형주의 주가 상승 영향이 컸다. 2분기 평가액 증가 폭이 가장 큰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평가액이 각각 69조1626억원, 82조1407억원 늘었다.

두 종목 증가분 합계(151조원)는 같은 기간 국민연금 전체 주식 평가액 증가분(189조원) 가운데 79.8%를 차지한다. 이

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 국내 주식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도 3월 말 40.4%에서 지난 6일 기준 55.7%로 확대됐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이어 SK스퀘어 보유 지분이 11조9953억원 늘어 증가액 순위 3위에 올랐고, 삼성전기는 보유 지분을 10.46%에서 9.95%로 0.51%포인트 줄였음에도 10조원이 넘는 증가액(10조4072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삼성물산(2조7278억원 증가), 삼성생명(2조5137억원 증가), SK(2조577억원) 순이었다.

반면, 1분기에 주식 평가액이 크게 올

랐던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2분기에는 1조717억원이 감소하면서 평가액 손실이 가장 컸다. LG에너지솔루션(-5737억원), 한화시스템(-4510억원)도 큰 손실이 났고, 카카오(-4470억원)와 네이버(-4153억원)의 주식 평가액도 크게 줄어들었다.

### ◆개인은 '반도체 사자'... 국민연금 올해 수익률 '역대 최대' 예상

최근 주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반도체엔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다시 주가가 오르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이날까지 개인 투자자의 SK하이닉스 순매수액은 7

조4000억원이다. 삼성전자 순매수액은 6조2000억원이다. 올해 전제로는 삼성전자 51조8000억원, SK하이닉스 48조2000억원어치를 각각 사들였다.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가격 상승 흐름을 근거로 목표 주가를 올리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다. 전날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89조4000억원, 매출액은 171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각각 전년 대비 1810%, 129% 증가한 것으로, 둘 다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KB증권은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에 대해 성과급을 감안하면 '깜짝 실적'을 거뒀다며 목표가를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했다. 김동원 리서치본부장은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상반기 성과급 전액 총당금 인식에도 전년 대비 19배 급증한 89조4천억원을 기록해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며 "성과급 총당금을 제외한 2분기 수정 영업이익은 107조원으로 추정돼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라고 평가했다.

미국주식에etak증서(ADR) 상장을 앞둔 SK하이닉스에 대한 평가도 장밋빛이다. ADR 상장은 오는 10일로 예고되고 있다. 류형근 대신증권 연구원은 "경쟁사와 동일 조건에서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을 기회이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쟁사 대비 사업 경쟁력과 규모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경쟁사에 비해 받고 있던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디스카운트는 빠르게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강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국민연금이 역대 최대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은 14.18%다. 금융 부문 수익률은 14.20%이고, 국내 주식 수익률은 59.71%에 달했다. 기금 운용 수익은 208조6000억원으로, 기금 규모는 1670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반도체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공개한 '기금운용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 적립금 증가 등 반영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년, 기금 소진 시점은 4년 연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자 전환 시점을 2050년, 기금 소진 시점을 2069년으로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 증시 훈풍에 ELS 발행 늘고 조기상환 급증

### 금감원 1분기 ELS 운용현황 발표 ELS 상환액 96.4%가 조기상환

국내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사채 발행이 투자심리 회복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주가 상승으로 조기상환이 늘면서 상환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됐지만, 전체 잔액은 소폭 감소했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파생결합증권·사채 발행·운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파생결합증권·사채 발행액은 1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8000억원(24.1%) 증가했다. 상환액은 20조6000억원으로 7조9000억원(62.2%) 늘었으며, 1분기 말 잔액은 93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6000억원

감소했다.

상품별로 보면 원금비보장형인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액은 6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했다. 이 가운데 ELS는 종목형 상품 발행 확대에 힘입어 5조5000억원이 발행됐고, DLS는 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원금지급형인 파생결합사채(ELB·DLB)는 ELB 수요 증가 영향으로 12조9000억원이 발행돼 27.7% 늘었다.

ELS 기초자산은 지수형이 3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목형은 1조5000억원이었다. 종목형에서는 테슬라(8000억원), 팰란티어(7000억원), 삼성전자(4000억원), SK하이닉스(3000억원)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 발행이 활발했다.

지수형에서는 국내 증시 강세 영향으로 코스피200 편입 비중이 78.7%로 확대됐다.

상환 규모도 크게 늘었다. 파생결합증권 상환액은 7조1000억원, 파생결합사채 상환액은 13조5000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4.3%, 66.7% 증가했다. 특히 ELS는 국내의 주가 상승 영향으로 상환액의 96.4%가 조기상환이었다.

투자 수익률도 개선됐다. 올해 1분기 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된 상품의 연환산 투자수익률은 파생결합증권이 6.8%, 파생결합사채가 3.5%였다. 세부적으로는 ELS가 8.3%로 가장 높았고 DLS 4.5%, ELB 3.7%, DLB 3.2% 순이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당정, 2028년 ESG 공시 의무화 추진

자산 10조 이상 상장사부터 시행

당정이 8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공시 제도화 방안'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관련 당정 주요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한 공시 제도화 방안' 당정 협의를 열고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관련된 성과와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칠 잠재적 재무 영향 등 비재무적 정보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2028년 연결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후위기, 산업전환, 공급망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 기업의 경쟁력은 현재 얼마나 이익을 내고 있는나로 국한되지 않는다"며 "얼마나 지



당정이 8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공시 제도화 방안'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사진은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어떤 위험을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지가 시장에서 주요 평가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공시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기업의 경영 프로세스 개선이 이뤄지고 이는 기업의 성과로 직결될 것이고 자본시장으로부터 그에 걸맞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미래에셋증권 "퇴근길 30분 연금투자 강의"

유튜브 라이브 세미나 새단장

미래에셋증권이 연금 고객을 위한 유튜브 라이브 세미나를 새롭게 개편해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세미나의 구성과 콘텐츠를 한층 강화해 '퇴근길 30분, 연금 투자 인사이트'라는 이름으로 새 단장했다. 첫 방송은 이날 오후 5시 30분에 진행된다.

'퇴근길 30분, 연금 투자 인사이트'는 바쁜 직장인들도 30분 동안 부담 없이 연금 투자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한 라이브 세미나다. 연금 투자와 자산배분, ETF, 절세 등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연금 시장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 중심의 운용에서 벗어나 자산배분을 기반

으로 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려는 투자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투자 정보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미래에셋증권은 변화하는 투자 환경에 맞춰 고객이 궁금해하는 내용과 투자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세미나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최근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미래에셋증권의 연금 자산배분 전략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연금을 ETF로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할 핵심 팁 6가지를 전달한다. 미래에셋증권 투자와연금센터를 비롯해 세무사, 노무사, 자산운용사 운영역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출연해 연금 자산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댓글을 통해 시청자들



의 질문에 답하며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세미나는 미래에셋증권 유튜브 채널 '스마트머니'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 앱스타(M-STOCK)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퇴근길 30분, 연금 투자 인사이트'를 매일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실시간 댓글을 통해 확인한 고객들의 관심사를 향후 방송 주제와 콘텐츠 기획에 적극 반영해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대표 연금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 대신증권, kt wiz와 2030 투자자 공략

야구팬 위한 투자 이벤트 진행

대신증권이 프로야구와 연계한 투자 이벤트로 2030 투자자 공략에 나선다. 국내 주식과 ETF, 펀드, 채권 등에 투자한 고객에게 kt wiz 홈경기 테이블석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ISA 계좌 투자에는 추천권을 두 배 지급해 장기투자자 절세 혜택을 함께 알린다는 전략이다.

대신증권은 kt wiz파크 테이블석 관람권을 제공하는 투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프로야구 스폰서십을 활용해 2030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투자 및 세제혜택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는 오는 8월 4일까지 대신증권 계좌를 보유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동안 국내 주식(ETF 포함), 펀드, 채권을 매수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추천권이 지급된다. ISA 계좌에서 투자하면 일반 종합계좌보다 추천권을 두 배 제공해 당첨 기회를 높였다.

/허정윤 기자

# 공정위, NXP·ADI 제재절차 착수 “국내 유통사 조 단위 불공정 거래”

독점 유통권 강제 등 갑질 혐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의견 제시 “반도체 분야 공정 거래질서 확립”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자동차 및 산업용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NXP(네덜란드)와 ADI(미국)의 ‘조 단위’ 불공정 거래 행위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유통사에 사실상 독점 유통권을 강제하거나 마진율과 재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등 갑질을 벌여온 혐의다.

두 회사의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만 4조 원을 웃돌아, 향후 최종 심의 결과에 따라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8일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자인 NXP와 ADI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 측에도 각각 송부해 사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국내 유통사를 상대로 이른바 ‘Ship&Debit(이하 S&D)’이라는 독

특한 거래방식을 운영해 왔다. 이는 유통사가 본사가 정한 제품별 ‘표준 공급가격’으로 제품을 먼저 구입한 뒤, 특정 고객에 대한 할인을 요청해 승인을 받으면 사후에 차액(표준 공급가격-실제 공급가격)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공정위 심사관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용 비메모리 반도체 국내 1위 사업자인 NXP는 최소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 구조를 악용해 심각한 구속조건부 거래 및 경영간섭을 해왔다. 자신과 거래하는 특정 유통사가 거래처(고객)를 확보하면 다른 유통사는 그 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독점 유통권’을 부여했고, 유통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마진율을 사전에 설정했다.

글로벌 아날로그 집적회로 시장 2위인 ADI 역시 최소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유통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마진율을 사전에 고정해 뒀고, 동시에 유통사들의 거래처에 대한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강제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대방제한행위, 경영간섭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위반

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심사관이 산정한 두 회사의 행위별 관련 매출액은 NXP의 경우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 관련 약 8.8억 달러(약 1.3조 원), ▲경영간섭 행위 관련 약 6.6억 달러(약 1조 원), ADI는 ▲경영간섭 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각각 약 8억 달러(약 1.2조 원) 씩이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며 “피심인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경제의 핵심 기반이자 미래 성장동력인 반도체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유통사의 거래처 및 가격 등 거래조건에 대한 자율적 결정권을 보장하는 한편, 유통사간 가격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차세대 중형위성 4호(농림위성)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는 모습.

/농진청

## 농진청, 농업위성 활용 정보 생산 돌입

차세대 중형위성 4호 발사 성공

농촌진흥청이 농업위성을 활용한 정보 생산에 돌입했다. 농진청은 우주항공청, 산림청과 공동 개발한 차세대중형위성 4호(농림위성)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7일(현지시간) 성공적으로 발사됨에 따라, 농업위성정보 생산과 활용 체계를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농림위성은 국내 최초의 농업·산림 분야 국가 관측위성으로 전국 농경지와 농작물을 3일 주기로 관측한다. 이를 통해 농경지 이용 변화와 농작물 재배 현황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해외 위성 의존도를 낮춰 우리 농업에 특화된 위성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농진청은 위성영상에 자체 축적한 AI 분석기술과 기상·공간·현장 정보의 융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재배면적, 생육

수량, 병해충, 농업재해, 토양수분 등 총 51종의 농업위성정보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생산된 정보는 주요 농작물 작황 분석을 통한 선제적 수급관리와 공익직불 이행점검, 침수·도복 등 농업재해 대응, 농업환경 분석 등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된다.

농진청은 지난해 ‘농업위성센터’를 신설해 위성 운영과 농업관측 정보 활용 연구를 전담해 왔다. 앞으로 현장 수요에 맞춘 농업위성정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농림위성 발사로 우리나라가 농업 분야 특화 국가 위성을 확보하고 상시 농업관측 기반을 마련했다”며 “현장이 필요로 하는 농업위성 정보를 단계적으로 제공하고 후속 위성 도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 인프라 조기 구축

기후부 한전과 전력공급 방안 논의 지자체·관계부처 협조 체제 가동

광주 군공항으로 입지가 확정된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오는 2030년까지 전력 인프라가 조기 구축된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성패가 신속한 인프라 확보에 달린 만큼, 정부와 한국전력은 공용망과 산단을 잇는 공급 선로를 최대한 앞당겨 첨단 공장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오후 이호현 제2차관이 세종청사에서 한전과 회의를 열고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 조기 전력 공급 방안’을 논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월요일(6일) 호남권 반도체 산단 입지가 광주 군공항으로 본격 확정된 지 이틀 만에 열렸다.

기후부는 산단 가동 목표에 맞춰 2030년까지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기 전력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전 공용망과 산단을 연결하는 신규 공급 선로의 조기 구축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인허가 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의 협조 체제도 긴밀히 가동한다.

한전은 전사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대규모 전력망이 필요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김재균

전력계통부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메가 프로젝트 전력망 조기건설 추진TF’를 신설했다. TF는 시공 및 조달 방식의 전면적인 혁신을 통해 기업들이 실제 공장을 가동해 전력이 필요한 시점보다 앞서 전력공급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기 전력 공급 대책은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글로벌 무탄소 첨단 산업의 메카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전력 인프라가 선제적으로 전폭 지원되면서 향후 국내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첨단 반도체 공장의 핵심 경쟁력은 안정적인 신속한 인프라 확보에 있다”며 “반도체 산단이 호남권의 풍부한 무탄소 전원 인프라를 기반으로 첨단산업과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력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이동식에어컨 절반, 설정온도 도달 못 해”

소비자원 창문틈새 마감 부실 영향

설치 기사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 1인 가구에 인기가 높은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 상당수가 장시간 켜두어도 설정 온도까지 실내 온도를 낮추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의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 6개 제품(5~8평형, 2025년 출시작)을 대상으로 품질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단열재 보강 없이 제품을 24℃ 강풍으로 작동시켜 실내 온도(35℃)를 24℃까지 낮추는 실험 결과, LG전자 제품이 26분대로 가장 빨라 ‘우수’했고 이파람 제품은 36분대로 ‘양호’했다. 반면 보국전자, 웰템, 한일전기, 플릭스 등 나머지 4개 제품은 장시간 작동 후에도 24℃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유는 창문 틈새 마감 부실이었다. LG전자를 제외한 5개 제품은 창문 틈새를

막는 단열재가 부족해 외부의 더운 공기가 실내로 유입됐다. 소비자원이 단열재를 임의 보강 후 재실험하자 온도가 내려가지 않던 4개 제품도 41~58분 만에 24℃에 도달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부실 업체들에 부속품 무상 제공을 권고했으며, 롯데하이마트와 웰템은 이를 수용해 단열재 등을 무상 추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정 온도 유지 능력을 보는 ‘온도 편차’ 시험에서는 제품별로 최대 2.1℃까지 차이가났으며, LG전자와 이파람 제품이 편차가 작아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작동시 소음은 53dB(A)로 일반벽걸이형 에어컨보다 약 9dB(A) 높았다. 이는 ‘교실 내부’ 수준의 소음이다. 제품별로는 LG전자 제품이 46dB(A)로 가장 조용했다. 월간 전기요금은 전 제품이 3만 8000원~4만 2000원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1등급인 LG전자와 이파람 제품의 전력 효율이 높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 한전, 경영 정상화 결실... 포브스 글로벌 기업 순위 급등

3년만에 428계단 수직 상승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유례없는 재무위기를 겪었던 암흑기를 지나, 3년 만에 극적인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며 세계 무대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고강도 자구노력과 체질 개선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 순위를 400계단 이상 끌어올리는 ‘수직 상승’을 기록했다.

8일 한전에 따르면,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Forbes)가 발표한 2026년 ‘포브



스 글로벌 2000' 순위에서 종합 319위, 글로벌 유틸리티 기업 중에서는 13위를 기록했다. 대규모 적자로 순위가 747위까지 추락

했던 2023년과 비교하면, 불과 3년 만에 428계단을 뛰어오른 극적인 반전이다. 이 같은 도약의 발판은 전방위적인 고강도 경영 혁신에 있었다. 한전은 지난 2022년 원자재 가격 폭등 여파로 32.7조 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임직원 전원이 동참한 비상경영과 자구노력을 통해 2025년 13.5조 원의 흑자를 달성, 2022년 대비 영업이익을 무려 46.2조 원이나 개선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사진)은 “이번 순위 상승은 전국 각지에서 내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헌신해 준 전 임직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며 “이번 성과를 끝이 아닌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글로벌 최고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한국가스공사, 홍의락 신임사장 내정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등 역임

한국가스공사의 신임 사장으로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내정됐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오는 23일 대구 동구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홍 전 의원의 사장 선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



하게 되며, 사장직 임기는 3년이다.

홍 내정자는 제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1년 제20대 대선 당시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남부권 경제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K-힐링 편의점 이야기”

뮤직드라마

# 불편한 편의점 2

Always

2026.4.1 - OPEN RUN 후암씨어터

원작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2 (나무옆의자 2022) |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작사 박예슬 | 연출 승운 | 작곡·음악감독 서진영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주최·주관 극단 지우 | 기획 (주)지우컴퍼니 (주)제이엘컬처 | 후원 나무옆의자 출판사 waterfallstory | 예매처 NOLticket 티켓링크 | 문의 02-332-4902

#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원스톱 지원체계 본격화

광주 군공항 부지 확정 후속조치 부지·전력·용수·인허가 전담 공동군공항 이전·산단 조성 병행 추진 신장성변전소·동북담 인프라 점검 공급망 복선화로 사고 리스크 차단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7일 오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산단이 들어설 전남광주 군공항 인근에서 부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부지 확보부터 전력·용수 공급, 인허가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행정지원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은 광주 군공항의 완전 이전 전이라도 산단 조성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 추진'을 선언하며,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기조에 발맞춘 강력한 속도전을 예고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기업들이 투자 계획에 맞춰 반도체 팹(Fab)을 짓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부지, 전력, 용수, 인허가, 민원 대응 등을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하는 전담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 청와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

로 최종 확정된 데 따른 신속한 후속 조치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은 7일 오전부터 광주 군공항, 장성 신장성변전소 예정부지, 화순 동북담 등 핵심 인프라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민 시장은 이 자리에서 "광주 군공항의 완전 이전을 기다린 뒤 순차적으로 산단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절차와 개발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며 정부가 강조한 '병행 추진'의 의지를 명

확히 했다.

첫 점검지인 광주 군공항을 찾은 민 시장은 부지 현황과 공사 절차를 살핀 뒤, 군사시설 보안상 상세한 언급은 제한하면서도 "이곳에 반도체 팹을 구축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군 유류 저장시설 인근의 환경오염 제거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하며, 군 훈련 문제만 조율되면 즉각적인 개발 착수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이어 오후에는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장성군 신장성변전소 예정부지를 찾은 민 시장은 345kV 송변전 설비 건설 계획을 보고받은 뒤, 신장성변전소와 국지도 49호선 축을 활용한 효율적인 전력 공급망 검토를 지시했다.

화순군 동북담에서는 취수 및 정수계통과 담 증고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민 시장은 "반도체 팹 1기당 하루 약 6만 톤의 용수가 필요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10만 톤 규모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전이나 단수 같은 치명적인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급망을 복선화하고, 나아가 '복선의 복선화'까지 고려한 완벽한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

지방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한 민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역사적 결단을 내린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고 수준으로 뒷받침하겠다"며 "토지 수용과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임기 내 완공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양수영 기자

yns6313@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울산시 수소 다차종 충전시스템 운영

울산시가 수소를 원료로 하는 다양한 이동수단을 한 곳에서 충전할 수 있는 다차종 충전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남구 산업로 태화강역 수소충전소 성능을 개선해 수소승용차와 수소전기버스는 물론 수소 트럭, 수소전기 트랙터, 수소연료전지 지게차까지 충전할 수 있게 됐다. 또 수소전기 트랙터의 충전시간도 기존 1시간 이상에서 평균 40분으로 단축되게 됐다. 시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지역 내 수소충전소 등 9곳에서도 수소승용차와 수소버스를 모두 충전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했다. /울산=이도식 기자

### 포항시 농식품 수출정책 평가 대상

포항시가 경상북도의 '2026년 농식품 수출정책 우수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 농식품 수출정책 우수 시군 평가는 모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출 달성도와 수출기반 조성, 해외시장 개척, 수출정책 참여 등 12개 분야를 종합 평가한다. 포항시는 수출전단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딸기, 시금치, 단감, 쌀, 배추 등 수출 품목을 확대했다. 또 러시아, 멕시코, UAE 등 신규 해외시장 개척과 우수 농식품 기업의 지역 정착 지원, 생산시설 확충 및 안정적인 공급 기반 조성을 위한 행정 지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포항(경북)=김진민 기자 jingmin@

### 경주시 여름 해수욕장 4곳 개장 준비 완료

경주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오류·나정·봉길·관성 해수욕장 등 4곳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해수욕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후 7시 이후에는 입수가 제한된다. 전촌해수욕장은 올해 개장하지 않는다. 시는 해수욕장별 상황실을 운영하고 안전부표와 유해생물 차단망, 인명구조함을 정비했다. 화장실과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구명조끼 대여 컨테이너도 설치했다. 현장에는 수상안전관리요원 4명과 인명구조요원 37명, 응급처치요원 4명, 해변순찰요원 4명 등 안전인력을 배치한다. /경주(경북)=김진민 기자

### 영천시 렛츠런파크, 개장 앞두고 모의경주

영천시는 9월 정식 개장을 앞둔 렛츠런파크 영천(영천경마공원)이 오는 18일과 25일 모의 경주를 실시하며 최종 리허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모의경주는 하루 3경주씩 총 6경기로 진행되며, 경주마 수송부터 전산 시스템 운영, 심판, 순위 판정까지 실제 경주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전 경주마는 당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 영천으로 이동해 신규 마사에서 출전 준비와 경주로 적응 훈련을 마친 뒤 경기에 참가하며, 모의경주 종료 후 다시 부산경남으로 복귀한다. 9월 문을 여는 렛츠런파크 영천은 영천시 금호읍 일대 144만㎡ 부지에 조성됐다. /영천(경북)=김준한 기자

## "충청광역연합으로 392조 투자 뒷받침"

박수현 충남도지사 기자간담회 삼성·SK 참여 첨단산업 투자 대응



박수현 충남도지사 기자간담회 현장 모습.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는 392조 원 규모의 충청권 첨단산업 투자를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미 산업 기반을 갖춘 충청권의 강점을 살려 첨단산업 투자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박 지사는 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충청광역연합 활용 방안과 정부부지사 임명, 지전법 공론화위원회 등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행정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며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통합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민선 8기에서 잘 구축해 놓은 충청광역연합을 보물처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

전-충남 중심의 행정통합과 달리 충청광역연합은 세종과 충북까지 함께하는 만큼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충청권 전체를 하나로 묶는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 국립창원대, 원전파손 예측 기술 개발

KAERI와 균열·접촉 동시 해석

국립창원대학교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원전 등 첨단 구조물의 파손 과정을 컴퓨터로 예측하는 구조 해석 기술을 새로 개발했다.

국립창원대 GAST-기계공학대학스마트제조융합공학 김재민 교수 연구팀은 KAERI 경수로핵연료기술 연구부 이동화 박사 연구팀과 재료가 갈라지는 균열과 물체가 맞닿아 눌리는 접촉을 하나의 계산 틀에서 동시에 해석하는 구조 해석 기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계 시스템이나 원전 구조물에서는 접촉과 균열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두 현상은 성격이 달라 그동안 컴퓨터로 각각 따로 계산해야 했다. 두 물체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닿는지를 매 순간 찾아내는 과정이 복잡한 데다, 균열이 자라면서 새로운 접촉면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균열과 접촉을 모두 부드럽게 번지는 방식으로 바뀌 하나의 계산 틀에서 함께 처리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균열은 흐릿하게 번진 손상 영역으로, 두 물체 사이 빈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쿠션으로 표현해 접촉 지점을 별도로 찾지 않아도 계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 부산 향토기업, 베네수엘라 구호성금 기탁

파나시아·세운철강·SB선보 성금 전달

부산시가 7일 오후 3시 시청 의전실에서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구호 성금 전달식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부산사랑의열매) 명예회장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재수 시장을 비롯해 부산사랑의열매 회장인 이수태 파나시아 회장과 전직 회장인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 최금식 SB선보 회장이 참석했다.

세 향토 기업은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각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현지 긴급 구호와 피해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

베네수엘라에서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4일 규모 7.2와 7.5의 강진이 39초 간격으로 잇따라 발생해 수도 카라카스와 북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났다.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성금을 기탁한 파나시아와 세운철강, SB선보는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국내외 재난 발생 시 꾸준한 성금을 내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다. 세 기업 대표는 부산사랑의열매 회장 또는 전직 회장을 지내며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 시장의 부산사랑의열매 명예회장 위촉식도 함께 열렸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온디바이스 AI 실증사업 2년 연속 선정

경북도, 사업비 106억 확보

경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온디바이스 AI 실증·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06억원을 확보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영주시 생활안전·산불·녹조 관제 실증사업에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경북도와 구미시,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소프트웨어산업진흥본부, 국산 반도체 설계기업 딥엑스, AI 디바이스 및 서비스 기업 등이 참여해 '구미 Smart Flow : 온디바이스 AI 기반 국가산업단지 교통·안전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사업을 통해 온디바이스 AI CCTV로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교통 흐름을 실시간 분석하고 교통량 예측과 교통흐름 최적화 서비스를 운영한다. 드론을 활용해 중앙분리대와 차선, 도로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탐지하는 도로 안전관리 체계도 실증할 계획이다.

또 구미 전역의 교통·물류 정보를 연계하는 디지털트윈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산업단지 교통상황과 물류 흐름, 도로 안전정보를 분석하고 산업단지 운영과 정책 결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 “버거 넘어 사이드·음료 메뉴 확장... ‘한국의 맛’ 세계로”

## 맥도날드 ‘한국의 맛’ 5주년

시리즈 누적판매 3000만개 달성  
사회·경제적 가치 약 617억 창출  
‘충주 찰옥수수 버거’ 신메뉴 공개

“한국의 맛 프로젝트는 지난 4년간 약 617억 원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단발성 버거 출시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거를 넘어 사이드와 음료까지 메뉴를 확장하고, 맥도날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마켓에서도 한국의 맛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나리 한국맥도날드 홍보대외협력팀 상무는 이같이 말하며 프로젝트의 성과와 글로벌 확장 포부를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한국의 맛(Taste of Korea)’ 프로젝트 5주년을 맞아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맥도날드 이태원점에서 ‘한국의 맛 신메뉴 출시 기념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9일 정식 출시되는 ‘충주 찰옥수수 치즈 크로켓 버거’를 공개했다. 간담회에는 성정화 마케팅팀 이사, 백창호 메뉴 개발팀장, 삼나리 홍보대외협력팀 상무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1년 창녕 갈릭버거로 시작된 ‘한국



맥도날드 ‘충주 찰옥수수 치즈 크로켓 버거’ 출시 기자 간담회. 왼쪽부터 맥도날드 성정화 마케팅팀 이사, 백창호 메뉴팀 팀장, 삼나리 홍보·대외협력팀 상무.

의 맛’ 프로젝트는 품질 좋은 국내산 식재료를 발굴해 대량 구매함으로써 지역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가와 상생하기 위해 기획된 로컬 소싱 프로젝트다. 지난 5년간 한국의 맛 시리즈는 누적 판매량 3000만 개를 달성하고 국내산 식재료 1000톤 이상을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 창녕 마늘, 보성 녹돈, 진도 대파, 진주 고추, 익산 고구마에 이어 올해 여섯 번째 주인공으로는 ‘충주 찰옥수수’가 낙점됐다.

이번 신메뉴는 옥수수가 알알이 박힌 모차렐라 치즈 크로켓이 특징이다. 크로켓 튀김옷에 옥수수 가루를 입혀 바삭한

식감을 살렸고, 100% 순쇠고기 패티와 매콤새콤한 스파이시 파마산 소스로 풍미를 더했다. 아침 시간대 판매되는 맥도닝 메뉴 ‘충주 찰옥수수 치즈 크로켓 머핀’도 함께 선보인다. 크로켓 컨셉은 버거와 동일하지만 화이트 소스를 추가해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강조했다.

맥도날드는 이번 신메뉴를 위해 약 25톤의 충주 찰옥수수를 구매했다.

제품 개발에만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됐다. 백창호 메뉴개발팀장은 “충주 찰옥수수는 쫄쫄하고 찰진 식감과 고소한 풍미가 특징으로, 고랭지 지형에서 재배돼 큰 일교차 덕분에 단맛과 풍미가



맥도날드 ‘충주 찰옥수수 치즈 크로켓 버거’ 출시 기자 간담회에 실물 버거가 전시돼 있다. /김수정 기자

더욱 뛰어나다”며 “한국인에게 친숙한 콘치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익숙한 맛을 맥도날드만의 방식으로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신메뉴 출시와 함께 충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 프로젝트도 전개한다. 맥도날드는 신메뉴 출시 기간 동안 충주시 관아골 청년물 상인들을 후원하며, 오는 9일부터 5주간 ‘반아골의 여름’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자체 재정 확충을 돕는 ‘고향사랑 기부제’ 연계 프로모션도 이어간다. 전국 매장 트레이메트(쟁반 위 종이)에 충주시 고향사랑기부제 QR코드를 삽입해

기부를 독려하고, 기부 참여자에게는 충주 특산품과 함께 맥도날드 버거 세트 쿠폰을 답례품으로 추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심 상무는 “지난해 익산시와 진행한 고향사랑기부제 캠페인을 통해 7-8월 기부금이 전년 대비 약 20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는 충주시와 손잡고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맥도날드가 전문 기관을 통해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의 맛’ 프로젝트가 창출한 사회·경제적 가치는 약 6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효과가 567억 원에 달했고, 농가 소득 증대 44억9000만원, 농산물 폐기 비용 절감 4억6000만원 등이었다.

맥도날드는 향후 ‘한국의 맛’ 프로젝트의 무대를 글로벌 시장으로 넓혀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성정화 마케팅팀 이사는 “앞으로 버거뿐 아니라 사이드 메뉴와 음료까지 ‘한국의 맛’ 라인업을 확대하고, 맥도날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마켓에서도 한국의 맛을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 CJ제일제당, 프리미엄 HMR 사업 확대

### 스타셰프 협업 지속 확대 평양냉면 등 신제품 출시

CJ제일제당이 스타 셰프와의 협업을 앞세운 프리미엄 가정간편식(HMR) 사업을 확대한다. 협업 제품이 출시 반년 만에 37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흥행에 성공하자 여름철 성수기를 겨냥한 신제품까지 선보이며 라인업 강화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출연 셰프들과 공동 개발한 프리미엄 간편식 제품의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이 370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최강록, 윤나라, 최유강, 권성준 셰프 등과 협업해 한식·중식·일식·양식 분야 43종의 제품을 출시했다.

대표 제품인 최강록 셰프의 ‘고메 우



최강록 셰프 가정간편식 협업 제품. /CJ제일제당

동’과 윤나라 셰프의 ‘비비고 국물요리’는 지난 1월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 200만봉을 돌파했다. CJ제일제당은 단순한 스타 마케팅을 넘어 셰프들의 조리 노하우와 레시피를 제품에 반영한 것이 소비자 호응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여름 성수기를 겨냥해 최강록 셰프와 함께 개발한 ‘비비고 평양냉면’, ‘비비고 들기름막국수’, 윤나라 셰프와 협업한 ‘비비고 삼계탕’도 새롭게 출시했다. 평양냉면은 양지 육수의 깊은 풍미와 오리고추 고명을 더해 차별화를 꾀했고, 들기름막국수는 들기름과 들깨를 활용한 고소한 맛을 강조했다. 삼계탕은 국내산 닭 한 마리와 우영을 넣어 전문점 수준의 맛과 식감을 구현했다.

신제품은 CJ더마켓을 비롯해 네이버 브랜드스토어, 쿠팡, 컬리 등 온라인 채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된다.

CJ제일제당 측은 “스타 셰프와의 협업을 지속 확대해 프리미엄 간편식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신라면세점, 홍삼 담금주 ‘류 레드 53’ 선포

### 정관장·류 증류소 공동 개발

신라면세점이 정관장, 류 증류소와 협업해 공동 개발한 홍삼 담금주 ‘류 레드 53(RYU RED 53)’을 단독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류 레드 53’은 지난해 4월 신라면세점과 정관장이 체결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기획된 상품이다. 지난해 신라면세점 단독 상품인 ‘정관장 뿌리삼 분삼 중편’에 이은 두 번째 협업 상품이다.

이번 상품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전통 증류주와 홍삼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통주와 홍삼을 결합한 면세점 전용 상품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류 레드 53’은 정관장의 프리미엄 6년 근 지삼을 원료 그대로 침출해 홍삼의 풍



홍삼 담금주 ‘류 레드 53’. /신라면세점

미를 살렸으며, 강화도에 위치한 류 증류소의 전통 증류 기술을 적용해 완성도를 높였다. 기존 홍삼주·인삼주가 홍삼 원료를 콘셉트로 활용한 것과 달리 홍삼 원물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류 레드 53’은 오는 10월 6일까지 신라면세점 제주점과 신라인터넷면세점에서 단독 판매된다.

/김서현 기자 seoh@

## 롯데·현대백화점, 고객만족도 최고 평가

### NCSI 조사 백화점 부문 공동 1위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이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나란히 최고 평가를 받았다.

8일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이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2026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백화점 부문 공동 1위를 차지했다.

NCSI는 한국생산성본부가 매년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기대하는 수준과 체감하는 품질,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하는 대표적인 고객만족도 지표다.

올해 조사에서 롯데백화점은 2022년이

후 4년 만에 1위 자리에 올랐다.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큐레이터’를 지향하며 고객관점에서 추진해 온 ‘리테일 혁신’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롯데백화점은 인전점의 전관 리뉴얼을 마무리하고 노원점의 부티관과 신선 미식 전문관을 잇달아 선보이는 등 전국 핵심점포의 프리미엄 큐레이션을 강화했다. 특히 잠실점과 본점은 쇼핑, 관광, 엔터테인먼트를 융합해 2년 연속 합산 연 매출 5조 원을 달성했다. 또한 AI VOC 시스템 도입과 업계 최고 전문가를 초빙한 현장 서비스코칭으로 서비스 혁신을 이끌었으며, 환경 보호 캠페인인 ‘리얼스(RE:EA

RTH)’와 ‘그린 리워드’ 서비스로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함께 1위에 오른 현대백화점은 이번 수상으로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정상 자리를 지키게 됐다.

현대백화점은 ‘고객 확대’를 핵심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서비스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 현장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Service Project 101’과 고객의 견을 수렴하는 ‘고객 행복 인사이트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자체 개발한 모바일 만족도 조사 시스템인 ‘SAI 지수’로 매장 서비스 품질을 관리한다. 친환경 경영 측면에서는 ‘365 리사이클 캠페인’을 비롯해 폐비닐을 수거용 봉투로 재활용하는 ‘비닐 투비닐’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김서현 기자

## 새로 오미자, 누적 판매 200만병 돌파

### 롯데칠성음료 한 달만에 시장 안착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5월 말 선보인 과일맛 증류주 ‘새로 오미자(사진)’가 출시 한 달여 만에 누적 판매량 200만병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새로 오미자’는 새로 살구, 새로 다래에 이어 출시된 제품으로, 경북 문경산 오미자 과즙을 담아 상큼하면서도 씩씩한 풍미를 구현한 알코올 도수 12도의 일반 증류주다. 오미자를 연상시키는 연한 붉은빛과 부담 없는 음용감이 특징이다.

소비자들은 ‘오미자의 풍미 덕분에



알코올 향이 강하지 않다’, ‘단맛이 과하지 않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다’, ‘시원하게 즐기기에 좋아 여름철과 잘 어울린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새로 오미자를 비롯해 새로 살구와 새로 다래 등 차별화된 과일맛 제품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브랜드 성장을 이끌고 있다”며 “상반기 마케팅 활동에 이어 하반기에도 다양한 소비자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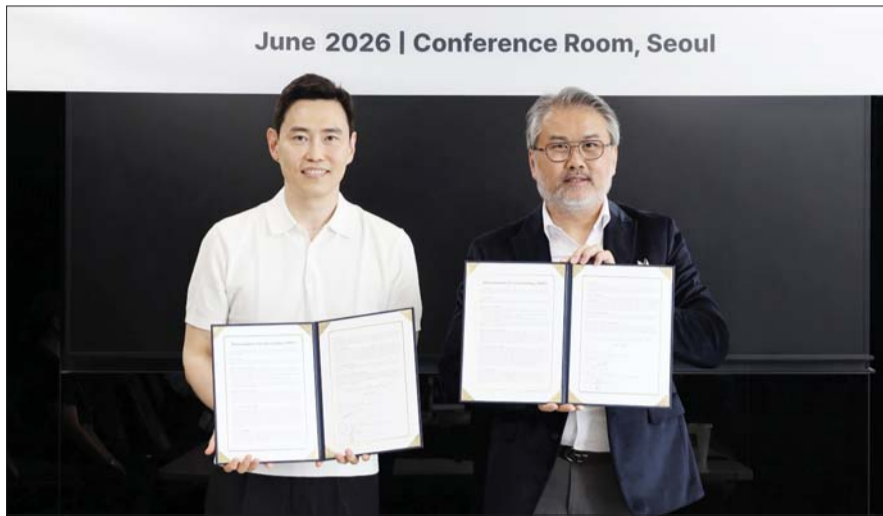
# ‘뷰티 강자’ 에이피알, 포토그레이 앞세워 동남아 공략

사업 다각화로 뷰티 편중 탈피  
교촌치킨과 슝인숍 사업 업무협약  
패션 브랜드 리브랜딩 등 체질 개선

국내 대표 K뷰티 기업 에이피알이 화장품 및 뷰티 디바이스 사업의 초고속 성장 뒤에 가려진 ‘기타 사업 부문’의 부진을 씻기 위해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린다. 즉석 포토부스 브랜드 ‘포토그레이’를 앞세워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며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선 모습이다.

8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에이피알은 자사 즉석 포토부스 브랜드 ‘포토그레이’가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의 마스터프랜차이즈(MF) 운영사인 ‘교촌 에스디엔 비에이치디’와 말레이시아 내 슝인숍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토그레이는 이르면 오는 7월 말부터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운영 중인 교촌치킨 매장 중 10여 곳에 순차적으로 즉석 포토부스를 입점시켜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6월 말 에이피알 잠실 본사에서 신재하 에이피알 부사장(왼쪽)과 테리 고 교촌 에스디엔 비에이치디 최고경영책임자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에이피알

포토그레이는 기존의 다양한 디자인 및 콜라보 프레임뿐만 아니라 교촌치킨 전용 프레임과 라이브 필터도 선보인다. 현지 소비자들에게 K뷰티부터 K푸드까지 K문화를 활용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에이피알은 스킨케어 브랜드 메디큐브 등 화장품 및 뷰티 디바이스 부문에서 호실적을 기록하며 전체 외형 성장을 이뤄냈다. 다만 의류 브랜드 ‘널디’, 포토

부스 브랜드 ‘포토그레이’ 등을 포함하는 기타 사업 부문은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성장 정체를 겪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매출 중 기타 사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기준 기타 사업 매출은 716억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였다. 이후 2025년 해당 사업 매출은 432억원으로 급감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로 줄

었다.

올해 1분기에도 주력 사업과 기타 사업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전년 동기 대비 20.4% 하락해 81억원으로 작아졌고 비중은 1.3%로까지 축소됐다. 반면 같은 기간,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를 합산한 뷰티 부문의 매출 비중은 98.7%에 달하면서 전체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에이피알 측은 이에 대해 “비핵심 사업 부 비중 축소에 따른 감소”라는 분석을 내놨다.

에이피알이 기타 사업을 살리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은 이번 포토그레이의 해외 진출만이 아니다. 또 다른 기타 사업의 축인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널디’ 역시 지난해 하반기 대대적인 브랜드 체질 개선을 단행한 바 있다.

널디는 지난해 9월, 브랜드명을 ‘NDY(엔디와이)’로 전격 교체하고 새로운 브랜드 정체성을 담은 25FW 컬렉션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브랜드 공개 이후 특유의 강렬한 색감과 시그니처 트랙 슈트로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나, 패션 트렌드 변화와 함께 성장세가 꺾이자 브랜드

를 재단장하는 강수를 뒀다. 기존 널디가 추구해 온 ‘나만의 자유로움’에서 나아가 빠르게 변하는 패션 트렌드에 발맞춰 브랜드 세계관에 유연함과 확장성을 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특히 기존 트레이닝복 이미지 탈피와 소비자층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에이피알은 내수 시장에 머물던 기타 사업의 무대를 글로벌로 넓혀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이미 동남아 시장에서 견고한 브랜드 인지도를 쌓은 교촌치킨의 현지 인프라를 활용하는 슝인숍 형태를 택해 해외 진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소비자 접점을 빠르게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에이피알 측은 “최근 필리핀, 대만 등에서 포토그레이 글로벌 사업 확장을 모색해 왔다”며 “이번 말레이시아 진출 성과에 따라 향후 입점 매장 추가 확대도 검토할 계획으로 포토그레이의 해외 진출과 함께 폭넓은 K콘텐츠들의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 LG화학, OTR 테라퓨틱스와 항암신약 협력

유망 항암 후보물질 공동 발굴·평가  
글로벌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 나서

LG화학이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있다. LG화학은 중국의 혁신 바이오 테라퓨틱스 OTR 테라퓨틱스와 항암 후보물질 발굴, 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LG화학은 중국 OTR 테라퓨틱스의 폭넓은 네트워크와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중국회사의 유망 항암신약 후보물질을 공동으로 탐색, 발굴, 평가하고 우수

후보물질에 대한 라이선스 도입 기회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중국의 빠른 신약개발 환경을 활용해 공동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OTR 테라퓨틱스가 중국에서 전임상 및 초기 임상개발을 수행하고 LG화학은 글로벌 후기 임상개발 및 상업화를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LG화학은 신약개발과 과학사업본부장은 “이번 협력을 혁신 신약개발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서 유망 후보물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검증할 수 있

는 기반을 강화하게 됐다”며 “유망 후보물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개발 기회로 연계해 환자 치료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TR 테라퓨틱스 창립자인 주이 천 대표는 “중국 바이오 생태계 내 잠재력을 성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이 될 것”이라며 “당사의 민첩한 연구개발 및 사업개발 역량과 LG화학의 임상개발 및 상업화 전문성을 결합해 초기 단계의 혁신을 임상적 가치 높은 항암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지씨셀, ‘CGT 밸류체인 얼라이언스’ 출범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지씨셀이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효율성과 사업화 속도를 높이기 위한 생태계 마련에 나섰다.

지씨셀은 지난 7일 경기 용인에 위치한 본사에서 엑셀세라퓨틱스, 코아시스템온, 진메디신, GCCL(지씨셀)과 함께 세포·유전자치료제(CGT) 산업의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CGT 밸류체인 얼라이언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씨셀과 참여기업들은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분야별 기업들로 생산, 임상시험 검체 분석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씨셀은 세포·유전자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중심으로 규제과학(RA), 제조-품질관리(CMC) 컨설팅부터 임상 및 상업용 의약품 생산까지 담당한다.

이와 함께 엑셀세라퓨틱스는 세포배양 배지, 코아시스템온은 비임상 및 독성시험, 진메디신은 바이러스 벡터, 지씨셀은 바이오분석 및 임상시험 등 각 분야에서 전



지난 7일 지씨셀 셀센터에서 원성용 지씨셀 대표(왼쪽부터), 이의일 엑셀세라퓨틱스 대표, 송시환 코아시스템온 사장, 배원기 진메디신 전무, 조관구 지씨셀 대표 등이 업무협약을 기념하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지씨셀

문성을 갖춰 유기적 협력을 연계한다.

이를 통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초기 공정 개발부터 비임상, 벡터 생산, 임상시험 분석,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GMP) 수준의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협력체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개별 기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 국내 CGT 산업 전반의 협력 생태계를 확대하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협업 모델을 다진다.

/이청하 기자

## 파마리서치메디케어 골다공증 치료제 출시

파마리서치 지회사 파마리서치메디케어는 테라파라타이드 제제인 골다공증 치료제 테라멘트주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테라멘트주는 폐경 후 여성과 골절 위험이 높은 남성의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장기간 사용해 골절 위험이 증가한 환자의 골다공증 치료에도 처방할 수 있다.

주성분인 테라파라타이드는 조골세포 활성을 촉진해 새로운 뼈 형성을 돕는다. 최근 골다공증 치료에서는 골절 위험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골형성 촉진제를 먼저 투여한 뒤 골흡수억제제에 이어가는 순차 치료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테라파라타이드는 이러한 치료 전략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성분으로 꼽힌다.

테라멘트주는 파마리서치가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한 제품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인 ‘포스테오주’의 바이오시밀라다. 파마리서치 메디케어는 근골격계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국내 의료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 오뚜기 라면의 변신... 창작요리 한자리에

실전형 요리경연으로 조리 인재 지원

오뚜기가 미래 식품·외식 인재 육성을 위한 창작요리 경연을 열고 학생들의 실전 조리 역량 강화에 나섰다.

오뚜기는 지난 7일 경기도 시흥시 한국 조리과학고등학교에서 ‘제17회 오뚜기 제품 이용한 창작요리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2013년부터 이어온 창작요리경연대회는 식품·외식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올해는 오뚜기 라면을 활용한 창작요리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한국조리과학고 2학년 재학생 210명이 3인 1조, 총 70개 팀을 이뤄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진라면(매운맛·약간매운맛·순한맛), 열라면(열라면·마열라면·더 핫 열라면·로열라면), 진짬뽕(진짬뽕·크립진 짬뽕·굴진짬뽕), 쫄면, 진비빔면·진밀면·진쫄면 등 다양한 오뚜기 라면 제품을 활용해 독창적인 메뉴를 선보였다.

심사는 담당교사 6명의 사전 서류평가를 거쳐 본선에서 오뚜기 임직원 4명과 특



오뚜기상 수상 메뉴 중국식 퓨전요리 한상차림(진짬만, 진순해물탕, 열라면우더이오) /오뚜기

별 심사위원 2명 등 총 6명이 시식 평가를 진행했다. 특별 심사위원으로는 오뚜기 연구소 이우석 마스터셰프와 박찬일 셰프가 참여해 전문성을 더했다.

대회에서는 오뚜기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등 총 6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인 오뚜기상은 방수빈·서지윤·서해랑 학생팀이 차지했다. 이들은 중국식 퓨전 한상차림을 주제로 진짬뽕 액상스프를 활용한 중국식 만두 ‘진짬만’, 진라면 순한맛을 응용한 ‘진순해물탕’ 등을 선보여 오뚜기 라면의 활용 가능성을 창의적으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현대백, 체험형 뷰티 팝업 ‘뷰티마블’ 개최

더현대 서울서 15일까지 운영

현대백화점이 15일까지 더현대 서울 지하 1층 대행사에서 체험형 K뷰티 팝업 행사 ‘뷰티마블(Beauty Marble)’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퍼스널 컬러 진단 브랜드 ‘틴트트리’, 색조 브랜드 ‘뽀아(BBIA)’, 폰드그룹의 ‘Pick No.3’를 비롯해 30여 개의 K뷰티 브랜드가 참여한다. 방문객들은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다.

행사장에서는 보드게임을 모티브로 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행사장 입구의 QR코드를 통해 웹게임을 참여한 뒤 주사위를 굴리고 미션을 수행해 스탬프를 적립할 수 있다. 스탬프 10개를 모으면 AI 피부 진단과 함께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 샘플, 리유저블백을 받을 수 있으며, 스탬프 20개를 모으면 퍼스널 컬러 진단 체험권이 제공된다.

행사 기간 참가 브랜드 제품은 할인 판매되며, 구매 금액대별 사은품도 증정한다. 외국인 고객에게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마스크팩을 추가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마련했다.

/김서현 기자 seoh@



# 6시간 야외활동 후, 피부는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 더 우아한 선케어  
골프, 여행 등 야외 활동을 위한 초슬림 투명 UV패치



세계 100대 골프 코스,  
엄격한 제품 선별 기준의  
해슬리 나인브릿지에  
국내 유일 입점

- # UV-A 98% / UV-B 99% 차단
- # 광대까지 커버되는  
88mm x 60mm 대형 패치
- # 접착제 없이 편안한 밀착
- # 자외선 차단 + 피부 보습 케어



Anano Inc. | 070-7773-9931 |

- 가양역\_메가팜스 가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금부빌딩 3층
- 을지로입구\_명동퍼스트약국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14 눈스퀘어 1층 (T.02-3789-7277)
- 명동역\_Hello K Beauty / WYNN (Currency Exchange, ATM, LUggage)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6길 6, 원스환전소 2-3층

- 양재역\_메디피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2, 크리스탈빌딩 1층 (T.02-3463-1547)
- 신논현역\_비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urbanhive 지하 2층 (T.02-542-8559)
- 해슬리 나인브릿지 / 경기도 여주시 명품로 76 (T.031-887-9999)
- 제주 나인브릿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로 34-156 (T.064-793-9999)



**중기중앙회, '나눔 페스타' 열고 소외계층 지원**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과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6 중소기업 나눔 페스타' 개막식을 개최했다. 9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나눔 페스타는 중소기업계가 기부한 15만점 상당의 중소기업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수익금을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행사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가운데)이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사랑나눔 자매결연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LGU+, 임직원과 발달장애 아동 가정 지원**

LG유플러스는 임직원 참여형 기부 프로그램 '천원의 사랑'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 위기가정을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4일 지적발달장애인의 날을 맞아 밀알복지재단과 협력해 약 500만원을 지원했다. (왼쪽부터)김정은 LG유플러스 AI서비스기획팀 선임과 고성원 밀알복지재단 모금사업본부장이 기념촬영 하고있다. /LG유플러스



**서부발전, 보건의로 지원사업 우수기관 선정**

서부발전은 지난 7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열린 '2026년 이천공공기관 지역발전 우수사례 설명회'에서 공공보건의로 지원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서부발전은 의료 취약 지역인 태안·서산에 서울대병원 의료진을 파견하고 전문 진료체계를 구축해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서부발전



**동아오츠카-낙동강생물자원관, 기능성 식품 개발**

동아오츠카는 7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담수생물 자원 활용 및 실효성 있는 ESG 경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 기관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담수생물 소재와 특허기술, 동아오츠카의 식품 개발 역량을 결합해 기능성 식품 소재 공동 연구와 제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아오츠카

**인사** ◆ **덕성여대** ▲ 입학처장 이호림 교수(바 이오공학전공 교수) ▲ 자유전공학부장 박현용 교수(국제통상학전공 조교수)

**부음** ▲ **황정렬** 씨 별세, **황필환**(자영업)-태한(자영업)-윤경씨 부친상, **장준수**(교보증권 디지털지원본부장)씨 부방상, **여의도성모장례식장 5호실**, 발인=9일 오전 8시, 02-3779-1526

# '디올 뉴 아반떼' 해외 호평... "역대 가장 멋진 디자인"

**현대차, '부산모빌리티쇼'서 공개 기존 준중형 세단 틀 벗어난 디자인**

현대자동차 준중형 대표 세단 아반떼가 지난 5일 폐막한 '2026 부산모빌리티쇼' 공개 이후 해외 매체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디올 뉴 아반떼는 현대차의 8세대 모델로 날카롭고 미래 지향적인 외관과 차급을 뛰어넘는 실내 공간, 첨단 디지털 경험 등을 갖춰 공개와 함께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해외 자동차 전문 매체들은 디올 뉴 아반떼의 디자인이 기존 준중형 세단의 틀에서 벗어나 한층 과감하고 미래지향적인 조형미를 구현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미국 카엔드라이버는 신형 아반떼를



지난달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부산모빌리티쇼'에서 디올 뉴 아반떼가 공개됐다. /차현정 기자

"SF 영화 스타일의 새로운 디자인"이라고 평가했고, 카스톱은 "슈퍼카를 연상케 하는 펜더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고 극찬했다.

또 다른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인 잘롭닉은 "역대 가장 멋진 콤팩트 세단 디

자인일지도 모른다"고 평했으며, 영국 오토 익스프레스는 "N 비전 74 콘셉트 못지않게 멋지게 등장했다"는 표현으로 신차의 등장을 전했다.

해외 매체는 공통적으로 신형 아반떼 전면부의 날카로운 램프 그래픽인

'H-엣지 라이팅', 입체적인 그릴과 볼륨감을 강조한 펜더, 낮고 넓은 차체 비례 등이 준중형 차급을 넘어서는 인상을 만든다고 분석했다.

디올 뉴 아반떼의 실내 디자인도 대형 디스플레이 중심의 간결한 레이아웃과 직관적인 조작 체계가 조화를 이룬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디올 뉴 아반떼는 '아트 오브 스틸' 디자인 언어를 바탕으로 대담하고 정교한 조형미, 첨단 디지털 경험, 차급 이상의 상품성을 두루 갖춘 모델"이라며 "공개 직후부터 이어진 글로벌 반응은 이번 아반떼가 준중형 세단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 르노코리아, SDV 서비스 고도화

**카카오모빌리티와 '맞손'**

르노코리아가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시대 대응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르노코리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모빌리티 혁신과 고객 중심 차량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향후 르노코리아 차량 플랫폼을 기반으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구현을 위한 고정밀 지도 및 소프트웨어 기술, 차세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및 커넥티비티(연결성) 서비스 고도화 등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사장은 "이번 협약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고객 경험과 혁신 서비스를 함께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르노코리아의 차량 개발 노하우와 파트너사들의 역량을 집약해 '휴먼 퍼스트' 철학을 담은 혁신적인 서



르노코리아 니콜라 파리 사장(왼쪽)과 카카오모빌리티 류공선 대표가 지난달 6월 19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차세대 차량 경험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비스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 달 코엑스에서 열린 넥스트라이즈 행사에서 카카오T 택시 기사 앱, 2열 승객 전용 엔터테인먼트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술과 서비스를 그랑 콜레오스에 구현한 차세대 모빌리티 콘셉트카를 선보였다.

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위한 고정밀 지도 기술과 모빌리티 데이터 활용 사례도 함께 전시하면서 차세대 차량 플랫폼에서 구현할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방향성을 제시했다.

/양성운 기자

## 귀뚜라미, 제품·서비스 경쟁력 '1위'

**국가고객만족도 가스보일러 부문**

귀뚜라미보일러가 고객이 직접 체감한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귀뚜라미는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주관하는 '2026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가스보일러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귀뚜라미는 NCSI 종합점수 79점으로 가스보일러 업계 최고점을 획득했다. 제품 및 서비스 품질, 불평률, 충성도 등 주요 평가 항목에서 고객들에게 가장 뛰어난 평가를 받았다.

귀뚜라미는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맞춰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전 과정에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혁신에 힘쓰고 있다.

가정용 보일러 렌탈 서비스 따숨게

아'를 통해 보일러 구매와 설치부터 정기 점검과 A/S까지 이용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고객 편의를 강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모바일 등 비대면 환경의 서비스 강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가정용 보일러 온라인 구매 고객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식 인증 판매점'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제품 성능뿐만 아니라 고객이 실제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국가고객만족도 1위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제품과 서비스 전반의 고객 경험을 지속 고도화해 60년 국민보일러 브랜드로서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LG AI연구원, '엑사원' 글로벌 경쟁력 입증

**국제학회 'ICML 2026' 참가**

LG AI연구원이 글로벌 인공지능(AI) 학회에서 산업 현장에 적용 중인 '엑사원'의 성과를 공개하며 기술 경쟁력을 알렸다. 신소재 개발부터 금융, 데이터 구축까지 AI 활용 범위를 넓히며 산업 AI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LG는 오는 1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마신러닝-인공지능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학회 'ICML(국제머신러닝학회) 2026'에 참가해 연구 성과와 함께 LG의 AI '엑사원'의 산업 현장 혁신 사례를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ICML은 마신러닝-인공지능 연구의 최신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세계 3대 AI 학회로, 글로벌 AI 학계와 산업계가 주목하는 최대 규모 행사다.

LG AI연구원은 이번 학회에서 신소재부터 금융, 데이터까지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엑사원이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신소재 개발 AI 플랫폼 '엑사원 디스커버리'의 실시간 데모와 함께, AI로 발굴해 제품 상용화를 준비 중인

탈모 관리 신소재 '탐시딜'과 차세대 AI 데이터센터 '액침 냉각용 소재' 실물을 공개했다.

엑사원 디스커버리는 신소재·신약 연구를 돕는 'AI 과학자'의 핵심 기술이 적용된 플랫폼이다. 탐시딜은 LG생활건강이 LG AI연구원과 함께 42만 개가 넘는 후보 물질 가운데 AI가 하루 만에 찾아낸 신소재다. 스테로이드 유래 성분 없이 탈모를 방지하는 효과를 보여 세계모발학회에서 성과를 발표했고, 현재 제품화를 준비하고 있다.

차세대 AI 데이터센터 액침 냉각용 소재는 GS칼텍스와 LG AI연구원이 공동 개발했다. 양사는 앞으로 신소재 발굴 범위를 함께 넓혀갈 계획이다.

LG AI연구원은 금융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에 이어 한국 시장으로 확장 중인 금융 특화 AI 에이전트 '엑사원 BI'를 시연했다.

마지막으로 LG AI연구원은 AI 데이터 공장 플랫폼인 '엑사원 데이터 파운드리'로 고품질 데이터를 AI로 생성하고 전문 분야에 특화된 AI 모델을 자동으로 구축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차현정 기자

## 효성, 'AI융합연구원' 신설로 AX 속도

**맹성현 교수, 부사장으로 영입 적용·융합형 연구개발 추진**

효성은 전사적인 인공지능 전환(AX)에 속도를 내기 위해 'AI융합연구원'을 신설하고 초대 연구원장으로 맹성현 카이스트 명예교수(사진)를 부사장으로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AI융합연구원은 중공업·섬유·화학 등 효성의 기존 제조사업에 최신 AI 기술을 접목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적용·융합형 연구개발(R&D)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AI를 단순한 업무 효율화나 비용 절감용 도구가 아니라 효성중공업, 효성티앤씨, 효성화학 등 그룹 주력 계열사의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과 미래 신사업 설계·실행을 최전선에서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리드할 계획이다.

아울러 효성이 축적해 온 제조 전문성에 AI를 결합해 스마트 팩토리를 완



성도 높게 고도화하고, 제조 현장 전반의 혁신 문화를 조성해 글로벌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맹 원장은 시라큐스 대학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 출신으로 의미 기반 정보검색, 텍스트 마이닝, 자연어처리, 언어 모델링 분야를 30여 년간 선도해 온 AI기술 전문가다. 그는 지난 8개월간 효성의 AI담당 고문으로 활동하며 회사의 디지털 전환 방향성 자문과 임직원들의 AI역량 향상을 위한 특강들을 진행해 왔다.

효성은 향후 AX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 인력은 물론, 산업 현장의 전문성과 AI 활용 역량을 겸비한 차세대 인재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 대입전형의 다각적 상호작용 고려해야



지 상 범의  
입시 토크

매년 입시 현장에서 반복되는 가장 큰 실패 원인은 성적이 아니라 전략이다. 많은 수험생은 스스로를 '수시파' 또는 '정시파'로 규정 한 뒤 쪽 전형을 완전히 포기하는 선택을 한다. 수시에 집중하며 수능을 내려놓거나, 정시를 준비하며 내신과 학교생활을 방치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재 대입은 어느 한 요소만으로 승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학생부와 수능, 대학별 전형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만큼 한 축을 포기하는 순간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입시는 단일 전형에 올인하는 게임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위험관리의 과정이다.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도 수능은 필수 경쟁력이다. 학생부교과전형은 물론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 상당수는 여전히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아무리 뛰어난 학생부를 갖추었다더라도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 합격은 불가능하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수시 지원전략 자체도 수능 경쟁력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

이다. 자신의 정시 가능 대학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상향·적정·안정 지원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이를 간과하면 정시로도 충분히 합격 가능한 대학에 수시 합격하는 이른바 '수시 납치'를 겪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향 지원으로 여섯 장의 기회를 모두 잃을 수 있다.

정시 역시 더 이상 수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최근 주요 대학들은 정시에도 학생부 교과평가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학교 수업 참여, 교과 이수, 학업 성실성은 정시에서도 경쟁력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생활을 포기한 채 수능만 준비하는 극단적 전략은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정시에서는 학생부 감점이 수능 한 문제 이상의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시 중심 수험생이라도 최소한의 내신 관리와 학교생활은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입시는 개인 성적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졸업생과 N수생 증가, 자연계 학생들의 사회탐구 선택 확대, 의대 모집인원 변화와 무전공 선발 확대 등 외부 변수는 해마다 합격선을 흔들고 있다. 과거 입결만 믿고 지원하는 방식은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다. 실제 점수의 가치와 경쟁 구도는 매년 달라지므로

변화하는 대입 환경을 함께 읽는 거시적 시각이 필요하다.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정시에서 중요한 기준은 등급이 아니라 대학별 환산점수라는 사실이다. 상위권 대학은 주로 표준점수를, 중위권 대학은 백분위를 중심으로 선발하며 영어 감점과 탐구 반영 방식도 대학마다 다르다. 같은 성적표라도 대학별 환산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등급 비교가 아니라 지원 대학의 반영방식을 분석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다.

결국 필요한 것은 자신의 성적대에 맞는 현실적인 실행 전략이다. 내신 경쟁력이 있는 학생은 학생부 관리와 함께 수능 최저 충족을 목표로 수능 학습을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 반대로 정시가 유리한 학생도 학교생활을 포기하지 말고 학생부 반영 대학과 논술전형까지 함께 고려하는 복합 전략을 세워야 한다. 마지막까지 수시와 정시의 가능성을 모두 유지하는 학생만이 변화하는 대입 환경 속에서 가장 많은 선택지를 확보할 수 있다. 입시는 한 전형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끝까지 연결하는 전략가에게 가장 높은 합격의 문을 열어준다.

/JSB진로진학연구소장

# 이 선수 놓치면 4년 기다린다



기지 수집  
김 연 세  
(정책사회부)

새벽 경기를 챙겨 봤다. 마흔을 넘긴 특정 선수의 라스트 댄스라서 아니라, 국경을 맞댄 축구 강국끼리의 맞대결이기에 4시에 알람을 맞췄다.

토너먼트에서 맞닥뜨린 포르투갈과 스페인. 그라운드와 관중석엔 긴장감이 상당했고 이베리아반도 경쟁 구도답게 어느 한쪽이 주도하는 경기가 아니었다. 팽팽한 0의 행진에 연장으로 가는구나 싶던 찰나 후반 추가시간 스페인의 골이 승부를 갈랐다.

사실 TV를 시청하는 내내 좀 많이 부러웠다. 한국과 일본의 16강(예) 경기였으면 어땠을까. 이를 전 세계 축구팬이 지켜보는 상황을 아침 댓바람에 잠시 상상해 본 시간이었

다. 축구 팬들에겐 각 출전국에 기대치가 있을 터. 2026 북미월드컵 개막 전까지 한국은 적어도 카보베르데나 남아공보다는 기대치가 대체로 높았을 것이다. 2023 아시안컵에서의 요르단전 패배는 복선이었을까. 그로부터 3년 뒤 선수들은 멕시코에서 맥없이 무너졌다. 감독 포함해 총체적 부실의 결과라는 게 여론이다.

'이 선수 놓치면 4년 기다린다'... 이는 2010 남아공 월드컵 당시 모 일간지 체육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얼굴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었다. 독자에게도, 상대 팀에도 적용되는 기막힌 표현이었다. 이제 보니, 선수를 기용하는 코치진에도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지면 제목이다.

한국은 6월25일 남아공전에서 또 하나의 뼈아픈 축구사를 썼다. 시간은 다시 흐르고 있고 벤투 전 한국대표팀 감독의 지적도 나

왔다. 희생양 찾기 일변도의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사태 해결에 도움 될 게 없다는 것. 공감한다. 감독을 둘러싼 사태가 마녀사냥이 아닌 환골탈태·전회위복으로 흐르길 기원해 본다.

이제 막 16강 여덟 경기가 마무리됐고 개막 후 한 달간 많은 사건이 있었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간담을 서늘케 한 아프리카대륙 서쪽의 섬나라 카보베르데. 이전 대회까지 약체로 평가받던 개최국 캐나다의 놀라운 성장세. 온갖 불이익 받고도 조별리그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이란. 네덜란드 잡은 모로코. 독일을 집으로 돌려보낸 파라과이. 브라질 농락한 노르웨이. 그리고 일본의 경쟁력 등. 7월7일 스페인전 종료 휘슬이 울린 직후의 호날두 표정에서, 패배 뒤 그라운드를 지그시 바라보던 손흥민의 모습이 교차했다.

/세종=kys@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9일 (음 5월 25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60년생** 주위사람들 모두가 귀하의 편을 들어줍니다. **72년생** 지나친 욕심은 결국 화를 부르게 됩니다. **84년생**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됩니다.
- 49년생** 의외의 일들을 겪게 될것입니다. **61년생** 금전, 직장, 이성운 모두 불리합니다. **73년생** 말 실수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85년생** 청천이나 혹은 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0년생** 가끔씩의 편안한 휴식은 약이됩니다. **62년생** 유비무환이란 말을 명심하도록 하세요. **74년생** 성실한 자세로 나아가면 더 큰 이익이 보입니다. **86년생** 지출을 좀 줄이세요.
- 51년생**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욱 심합니다. **63년생** 말 조심하고 건강에 신경 쓰세요. **75년생** 늘 올바른 자세로 매사에 임하세요. **87년생** 길을 가다 필요한 정보를 얻을 것입니다.
- 52년생** 모든 일이 원하는대로 잘 풀립니다. **64년생** 약간의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76년생** 오늘 귀하의 행운의 숫자는 9번입니다. **88년생** 능력을 평가하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 53년생** 자신의 고집을 버려야 하는 일이 갈립니다. **65년생** 괴롭지만 고통을 내색하지 마세요. **77년생** 이성과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89년생** 신중히 나아가야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 54년생** 남에게 베푸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세요. **66년생** 유비무환이란 말을 명심하도록 하세요. **78년생** 별들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90년생** 새 친구들을 사귀도록 하세요.
- 55년생**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67년생** 재물을 두고 다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79년생** 주변을 잘 살펴보고 귀인을 찾으세요. **91년생** 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 56년생** 재정문제는 당분간 어려워집니다. **68년생** 꿈같은 시기를 만났습니다. **80년생** 유희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될것입니다. **92년생** 좋지 않은 시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 57년생** 의욕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습니다. **69년생**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81년생**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93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 58년생** 되도록이면 외출을 삼가하세요. **70년생** 우연한 기회에 복운을 만나 평온해 지겠습니다. **82년생** 물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94년생** 뒷사람한테 인상은 주게 됩니다.
- 59년생** 자존심에 얽매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71년생** 오랜 고난 끝에 보람을 찾게 됩니다. **83년생** 좋은 결과를 거두기에는 어렵겠습니다. **95년생**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줄 여건이 못됩니다.

## 김상회의 四季

### 중창 불사

불사(佛事)는 말 그대로 불교와 관련된 일이다. 부처님의 법을 퍼기 위해 법회를 열고 불공을 비롯한 각종 제를 올리거나 경전을 간행하는 일, 크고 작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전각을 새로 짓고 중수하는 일과 불상을 조성하는 일 등 불교와 관련된 모든 일을 총칭하는 말이다. 보통은 사찰을 중창하고 전각을 중수한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지만, 경내의 탑을 세우거나 경전을 발간하는 일, 이미 조성된 불상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다시 개금불사를 하는 등 불사의 범위는 참으로 다양하다. 우기가 긴 인도는 부처님 당시에 일 년에 한 번 안거에 들어가는데,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부처님을 비롯한 수행자들이 비를 피하여 수행할 수 있는 수행처를 지어 보시하였다.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깨달음을 펼치는 과정에 신심 있는 재가자나 왕이 지어 보시한 불교 최초의 사원 즉림정사와 기원정사(祇園精舍)가 그 예이다.

즉림정사는 당시 마가다 왕국의 수도였던 라자그리하의 가란타장자(伽藍陀長者)가 소유하고 있던 대나무 정원을 장자가 불교에 귀의하면서 불교의 승원으로 바쳤고, 마가다국의 왕이었던 범비사라가 가람을 짓게 하였다 고 알려져 있다. 기원정사(祇園精舍)는 역시 당대 재벌에 해당하던 급고독 장자가 제다 태자 소유의 숲을 사서 수행에 적합한 정사를 지어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제일 오랜 기간 안거를 보냈던 곳이라 알려져 온다.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 대승불교를 받아들인 우리나라는 천년 고찰이 관히 생긴 것이 아니다. 필자가 터를 마련하여 주석해오던 서오릉 인근의 월광사 역시 풍수적으로는 기운이 남달랐던 곳인데, 그래서인지 정부의 신사까지 개발계획에 편입되어 부득이하게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음만 먹으면 달려갈 수 있는 도심 속 기도시행처를 바라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훈련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풀이:

3	6	1		5	4	7
	9	7	5			8
7				2		
3			8			1
	8					6
2				9		4
		9				8
	7		2	8	5	
9	1	8		7	6	2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2	9	7	2	9	8	1	6
6	9	8	1	2	7	8	2	9
8	1	7	9	8	2	6	2	9
7	8	2	6	8	1	9	9	2
9	9	8	2	6	2	7	8	1
1	2	6	9	9	8	2	7	8
9	6	2	8	7	8	1	9	2
2	8	1	8	9	2	6	7	
2	7	9	2	1	6	9	8	8

8 9 2 7 8 2 1 6 9  
9 6 1 2 9 8 7 2 8  
8 1 7 9 2 9 6 8 2  
2 8 8 9 7 6 2 9 1  
7 2 9 6 1 2 9 2 8  
2 9 6 2 8 1 9 8 7  
9 8 2 1 9 2 8 7 6  
6 2 8 8 2 7 9 1 9  
1 7 9 8 6 9 8 2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4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53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교육교부금 개편 본격화... “지원 확대” vs “재배분 반대”

정부 “변동성 줄이고 지원 확대”  
영유아·대학·평생교육 재원 쟁점  
교육계 “초·중·고 재정 축소 우려”  
학생 줄어도 학교 역할 확대 지속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8일 '교육재정의 새 물질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뉴시스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를 둘러싸고 교육재정 개편 논의가 본격화했다. 예산 당국은 교부금 변동성을 줄이고 영유아·대학·평생교육까지 재정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했지만, 교육계는 지원 범위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초·중·고 교육재정을 재배분하는 방식에는 반대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8일 '교육재정의 새 물질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 교육 중심으로 배정하는 재원이다.

### ◆ “축소 아니다” vs “재배분 안 돼”

예산 당국은 교부금 산정 방식을 손보더라도 초·중·고 학생 1인당 지원 수준을 낮추지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흥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논의의 핵심은 세수 변동에 따른 교육재정 변동

성을 완화하고, 교육 투자 부문별 균형 성장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있다”며 “한쪽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는 더 단단히 하고, 영유아·대학·평생교육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교육재정의 기본 안전망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범위가 영유아·고등교육·평생교육까지 넓어진 만큼, 안정적 재원 틀 안에서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계는 교부금 사용자 확대

논의가 실제로는 초·중·고 교육재정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유아·고등교육·평생교육 지원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그 재원을 기존 초·중·고 교육재정에서 떼어내는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겸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병역 자원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줄이지 않듯,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재정은 현재 세대가 미래세대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세대 간 계약”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도 학생 수 감소를 곧 교육

수요 감소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과거 학교가 가르치는 공간이었다면 현재는 돌봄, 복지, 학생 정서 지원, 안전지원까지 역할이 확대됐다”며 “학생 수 감소만으로 재정 축소를 리를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 ◆ 영유아·대학·평생교육 재원 필요

교부금 사용 범위를 영유아·대학·평생교육까지 넓혀야 한다는 요구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유재준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대학은 국가 기술 경쟁력의 최전방에 있지만 재정은 영양실조 상태”라며 “2030년

까지 연장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만으로는 대학이 20년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대중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평생교육 재정 부족을 지적했다. 강대중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40대 가장도, 60대 노인도 미래가 있다”며 성인 역량 저하에 대응할 평생교육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보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영유아 교육도 교부금 논의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황옥경 유아정책연구소장은 “교부금은 학교 중심을 벗어나 생애 초기 영유아까지 포괄하도록 발전해야 한다”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질 향상에 충실하도록 재정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부금 산정 방식에 학령인구와 국가 재정 여건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기존 개편론도 이어졌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부금 구조를 자녀 교육비 자동이체에 비유하며, 초·중·고 자녀가 줄었는데도 같은 비율로 더 많은 돈을 보내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 경기도, AI로 화재 조기감지망 구축

온디바이스 AI 실증사업 공모 선정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6년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공모사업에 '산업단지·물류시설 AI 화재 조기감지 시스템 구축' 사업이 선정돼 2027년 12월까지 AI 기반 광역화재안전망을 구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59억 원을 포함해 총 98억 원이 투입되며, 산업단지와 물류시설, 전통신장 등 화재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AI 기반 화재 조기감지 체계를 구축한다.

도는 현장에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는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해 불꽃과 연기, 가스 누출 등 화재 징후를 실시간 감지하고,

국산 AI 반도체를 적용해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감지 정보는 통합관제 플랫폼으로 전송돼 위험도를 분석하고 담당자에게 즉시 알림을 제공한다.

실증 사업은 경기테크노파크를 비롯해 수원·화성·이천시와 AI 전문기업이 참여하며, 수원 텔타플렉스와 화성 향남제약단지·전통신장, 이천 산업·패션·물류단지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수원시 자원순환센터에서는 AI 기반 소방로봇을 활용한 화재 대응 실증도 함께 진행한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AI 기술을 행정 현장에 적극 적용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AI 행정 혁신을 체험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대희 기자 dkim@

## 서울, 틈새보육 4곳 추가

서울시가 야간·휴일이나 갑작스러운 일정으로 아이를 맡겨야 하는 양육자를 위해 '서울형 긴급·틈새보육' 어린이집 4곳을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이용 가능한 365일 어린이집은 15곳, 1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은 25곳 등 총 40곳이 운영된다.

서울시는 2026년 상반기 서울형 긴급·틈새보육 신규 어린이집 4곳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365일 어린이집에는 강북구 송천동 어린이집과 금천구 새길어린이집이 새로 포함됐다.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에는 구로구 디지털퓨터 어린이집과 서초구 서초한별어린이집이 지정됐다.

365일 15곳·시간제 25곳 운영  
야간·휴일 보육 공백 40곳 대응

365일 어린이집은 신청,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을 제외하고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이번 신규 선정으로 기존 13곳에서 15곳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맞벌이, 교대근무, 주말근무 등으로 생기는 보육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365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365일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2023년 939명에서 2024년 1458명, 2025년 1657명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주말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토·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주말어린이집도 별도로 10곳 운영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 전문기술석사 진학 길 넓힌다

삼육대, 광주보건대와 박사 연계  
보건의료 연구·교육 인재 양성 협력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과정을 마친 보건의료 분야 인재가 일반대학 박사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는 연계 체계가 마련된다.

삼육대학교(총장 제해중)는 광주보건대와 박사과정 연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은 광주보건대 전문기술석사과정 이수자를 삼육대 박사과정과 연계해 보건의료 분야 연구·교육 인재로 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가 전문대학에서도 석사 수준의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전문기술석사과정' 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은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에 설치할 수 있는 석사 수준 과정으로, 이수자는 전문기술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보건대 전문기술석사과정 이수자가 삼육대 박사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는 연계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협약식은 지난 6일 삼육대 백주년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삼육대에서는 손애리 대학원장, 황윤정 부원장, 송장호 물리치료학과 교수가, 광주보건대에서는 이동진 보건전문기술대학원장 겸 물리치료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공동 학술대회와 세미나 개최도 협력하기로 했다. 두 대학은 보건의료 분야 교육과 연구 역량을 공유해 실무와 연구



(왼쪽부터) 손애리 삼육대 대학원장, 이동진 광주보건대 보건전문기술대학원장. /삼육대

를 함께 갖춘 전문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손애리 삼육대 대학원장은 “광주보건대의 석사 인재들이 삼육대에서 학문적 깊이를 더해 현장과 학계를 아우르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진 광주보건대 보건전문기술대학원장은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체계적인 학문적 성장 경로를 제공하고, 양 기관의 교육·연구 역량을 공유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보건대는 보건의료 전문대학으로, 지난해 4개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인가를 받았다. 올해부터 신입생을 모집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9 | 해질 / 19:56

7월 9일 (木)  
음력: 5월 25일

수도권 날씨 24~27°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백령도 21/25, 파주 23/26, 인천 24/26, 수원 24/27, 평택 24/28, 연천 23/26, 동두천 23/26, 가평 22/26, 서울 24/27, 양평 24/27, 용인 24/2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메트로 한줄뉴스



▲이란 갈리바프 “美, MOU 수차례 위반… 협박 시대 끝났다”  
▲日정부, 아베 4주기 맞이해 “아베 성과 바탕으로 경제·외교·안보 구축” /사진 뉴시스

▲美 헤그세스 국방장관, 첫 이스라엘 방문… 네 타나후와 회동  
▲트럼프 “그린란드美가 통제해야”… 유럽엔 “미군 뺄 수도”

▲쿠웨이트·카타르서 공습경보… “미사일 및 드론 위협에 대응 중”  
▲“레바논 대통령, 21일 미국 방문… 백악관 초청 받아”



맥도날드 지역상생 모델 '한국의 맛' 5주년 기념



Life

에이피알 '포토그레이'로 동남아 공략 L2



100+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인공지능 (AI) 시대, 자산관리 전략도 달라져야

2026년 7월 9일(목)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컨퍼런스홀 후원: 금융투자협회, KRX 한국거래소 주최: metr, metr경제



장수 리스크 지울 'AI 해법'... 노후 자산관리의 미래 본다

AI 시대, 자산관리 패러다임 전환 분석·실행하는 'AI 에이전트' 진화 변화 맞춘 연금·부동산 등 전략 제시

인터넷의 30년 역사는 인간이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수고를 끊임 없이 줄여온 과정이었다. 1990년대 검색 서비스 회사 야후는 정보를 분류하는 수고를, 2000년대 이후 구글은 검색의 수고를 덜어줬다. 인공지능(AI)은 이런 모든 수고를 포함해 클릭하고, 생각하는 수고까지 덜어주고 있다. 웹이나 앱에 접속해 일일이 정보를 찾고, 쇼핑을 하고,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자산 관리를 하는 복잡한 번거로운 작업을 AI 에이전트가 대신하는 것이다. 만능 재주꾼 AI 에이전트가 노후자산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조언하는 새로운 '자산관리 문지기'(게이트 키퍼)이자 '자산관리 주치의'가 된 것이다. 현재 AI는 사용자가 먼저 말을 걸어야 대답하고 행동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

용자가 질문이나 명령을 내리기 전에 AI가 먼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해 행동을 미리 제안하고 실행하는 프로액티브(Pro active) AI 에이전트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예컨대 AI가 각 개인의 캘린더를 보고 "다음 주 은행에 가입한 만기 상품이 있는데, 다음 주 중 새로운 상장지수펀드(ETF)상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반도체와 양자컴퓨터 관련주에 투자하는 데 자산 포트폴리오를 바꿀까요?"라고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투자까지 하는 식이다. AI의 빠른 확산으로 노후를 둘러싼 게임의 법칙이 달라지고 '장수 리스크'가 현실이 된 지금,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 2'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라는 주제로 AI시대에 달라질 자산시장의 미래와 자산관리 해법을 제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조강연자〉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 선임연구위원(박사)이 기조강연을 맡는다. 그는 'AI와 자본시장: 기회와 위험'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AI가 사용자(개인, 기관 등)를 대신해 자산을 관리하는 '에이전트 AI(Agentic AI)' 시대를 그릴 예정이다. 'AI 워싱' 등과 같은 새로운 위험에 대비해 감시감독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할 방침이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26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글로벌 경제에 밝고 자본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전문가로 평가받는 그는, AI가 가져올 경제와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하반기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의 금리 전망, 장기금리 흐름, AI 시대 자산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프로그램

Table with 3 columns: 시간, 구분, 프로그램. Details the forum schedule from 13:00 to 16:20.

배분 전략까지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정재훈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조교수는 'AI 시대의 부동산자산관리: 시장 진단부터 미래 투자 전략까지'를 주제로, 서울과 지방의 회복 속도 차이,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양극화, 1기 신도시별 가격 및 거래량 격차 등 최근 부동산 시장의 차별화 양상을 공유한다. 100세 시대 맞춘

행 자산관리 전략도 제시할 예정이다. 조명훈 한국투자증권 연금컨설팅부 부사장(이사)은 'AI를 활용한 초개인화 연금 자산관리'를,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온체인 금융이 온다'를 주제로 각각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사이클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AI가 가져올 경제와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 하반기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 황 센터장은 미국 경제가 고소득층 중심의 견조한 소비와 AI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AI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투자와 소비를 자극하면서 물가와 금리 경로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AI가 생산성 향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투자와 수요가 더 빠르게 확대될 경우 오히려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짚는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AI 서비스 확산과 데이터센터 투자 증가가 HBM과 DRAM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를 동시에 견인할 것으로 내다본다. 반도체 업황 호조가 우리나라 성장의 핵심 축이 되는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 흐름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 (현)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전무) - (전)하나증권 글로벌리서치팀장

조명훈 한국투자증권 연금컨설팅부 부사장



인공지능(AI)이 자산관리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는 가운데 조명훈 한국투자증권 연금컨설팅부 부사장이 AI 기반 초개인화 연금관리 전략과 연금시장의 미래를 제시한다. AI를 활용해 투자자별 특성을 분석하고 장기자산관리를 고도화하는 방안과 함께 연금 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할 예정이다. 조 부사장은 AI 연금관리의 핵심으로 '초개인화 진단 및 온보딩', '스마트 자산배분', '정기 맞춤형 큐레이션' 등 세 가지 솔루션을 제시한다. 연령과 소득, 투자 성향, 노후 준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연금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은퇴 시점과 연금 수령 전략까지 반영한 개인별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AI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소개하며 시장 국면과 변동성 변화에 따라 전략 자산과 현금성 자산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하락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장기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운용 체계를 설명할 예정이다. 글로벌 투자환경 변화에 맞춘 포트폴리오 관리와 리스크 대응 전략도 함께 제시한다.

- (현)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컨설팅 조직 총괄 - (전)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 TFT 리더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조교수



정재훈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조교수는 'AI 시대의 부동산 자산관리: 시장 진단부터 미래 투자 전략까지'를 주제로 데이터 기반의 부동산 투자 해법을 심도 있게 풀어낼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크게 현 시장에 대한 '진단', 정부 '정책'의 파급 효과, 향후 시장 '예측', 그리고 실질적인 투자 '전략' 등 네 가지 핵심 파트로 구성된다. 먼저 시장 진단에서는 서울과 지방의 회복 속도 차이,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양극화, 1기 신도시별 가격 및 거래량 격차 등 최근 부동산 시장의 차별화 양상을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시장의 온도차, 전세와 월세 시장의 구조 변화, 서울 시가총액 상위 20개 단지를 중심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슈퍼스타 경제학' 현상도 함께 살펴본다. 정책 부문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연이은 대출 규제 등 주요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규제 발표 이후 거래량 회복 과정과 서울 아파트 가격 흐름을 점검하고, 착공 물량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와 전세·월세 시장 가격 변화 양상도 진단할 예정이다.

- (전)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 - (전)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겸임교수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실물자산 토큰화(RWA) 확산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블록체인이 더 이상 가상자산 시장에만 머무는 기술이 아니라 거래와 결제, 청산, 보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전반을 바꾸는 '온체인 금융'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한다. 김 센터장은 비트코인이 '사기'라는 평가를 받던 시기를 지나 기관투자가의 투자 대상이 되고,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는 과정은 금융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설명한다. 과거에는 반감기가 비트코인 가격을 움직이는 핵심 변수였다면 이제는 ETF 자금과 기관투자가, 정책 등 거시 환경이 시장을 이끄는 시대가 열렸다는 분석이다. 강연에서는 온체인 금융의 개념과 실물자산 토큰화(RWA),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을 비롯해 미국 SEC와 CFTC의 규제 변화, DTCC의 토큰화 결제·청산 시스템 구축 등 미국 금융시장에서 진행 중인 변화를 살펴본다.

- (전)다수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전략기획 업무 수행



▲이정후, 토론토전 4타수 무안타...연속 경기 안타 5경기서 중단 ▲오타니, 콜로라도전 선제 솔로포...쇼 선수 최초 MLB 300홈런 금자탑 /사진 뉴시스

▲국제올림픽위원회, 러시아 올림픽 출전 제재 완화...反도핑 단서 달고 2028년 복귀 ▲LG 오스틴, 김도영·최민석 체지고 6월 MVP 선정...개인 두 번째

▲여자배구 신생팀 SOOP, 전세안·송은채 영입해 전력 강화 ▲한국농구연맹, 삼성 이관희·KCC 김동현 '보수 조정 신청' 재정위 연다

SK telecom

2026



1984

# 오래 쓰길 잘했다 이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1984년부터 10년, 20년,  
그리고 40여년에 이르기까지  
고객님과 함께한 오랜 시간 뒤에  
SK텔레콤이 가장 듣고 싶은 말  
“오래 쓰길 잘했다”

그 어떤 혁신적 비전보다  
어느 최첨단 기술보다  
고객님께 들려올 이 말 한마디가  
저희가 향해야 할 답이고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을 내어 주신 오랜 시간이  
장기고객님께 기분 좋은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그 한마디를 위해 달리겠습니다

다시 고객이라는 출발점에서

SK텔레콤 CEO

정재현

### T 장기고객 프로그램

데이터 혜택 제공 · 공연/전시 할인 · 단독 이벤트 초청 · T 멤버십 VIP 승급  
\* 혜택별 대상·조건·기간·제공 방식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T 멤버십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0년 이상 장기고객님들을 위한 스페셜 케어

직접 찾아가는 방문 케어 · 장기고객 전문 상담 케어

국가고객만족도  
이동전화서비스 부문  
29년 연속 1위

